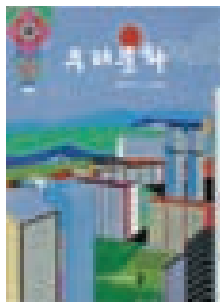


Inside KCCF

02	여는 페이지	
04	칼럼	새 정부 문화정책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과제
10	연합회소식	2008 사무국장 연찬회
14	특별기고	고(故) 양중해 지회장님의 서거 1주년에 즈음하여
18	문화원탐방	이천문화원
24	문화원이야기 I	원주문화원
26	문화원이야기 II	성주문화원
28	문화원이야기 III	홍천문화원
30	연재 I	문화원 원장에게 듣는 우리나라 이야기

Outside KCCF

34	함께 읽는 시	새벽
36	함께 읽는 수필	아름다운 화장실
38	특집	향토사
40		향토사 왜 중요한가
44		향토사 교육의 원리와 지도
50		청소년과 함께 한 향토사 대중화 사업
57		향토사 연구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65		연합회 향토사 대중화사업 소개
66	연재 II	아리랑 _ 서울, 경기도 아리랑의 가락 속으로
72	들여다보기	도자기에 상상력을 불어넣다 / 한옥을 타고 여행하다
79	책갈피	
85	연합회레이더	우리문화 소식
87		원장동정



표지그림 분당아리랑
그린이 김정 서양화가
분당은 신도시로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 면면히 이어지는 정신과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아리랑 선율에 초점을 맞춘 그림.

등록번호 라36627(1984. 7. 12)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권용태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원고는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개나리꽃이 피면 개나리 꽃 피는 대로
살구꽃이 피면 살구꽃이 피는 대로
비오면 비오는 대로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다

당신입니다

- 김용택 '다 당신입니다'

밤사이 내린 봄비에 힘껏 마른가지를 뚫고 나온
연둣빛 새싹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달다, 달다, 참 달다...
만개한 봄꽃에게도, 망울망울 달린 새싹에게도 참으로 달콤한 봄입니다.
곧 지나고 말 봄이지만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초목처럼
지방문화원 모든 식구들 풍요롭고 감사하기를 소망해봅니다.

새 정부문화정책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과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정권교체에 의한 새로운 정부인만큼 국정 전반에 걸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 전체에 대한 비전과 정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하부 영역에서의 정책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아직 없다. 따라서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정책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해 단편적으로 알려진 문화정책 내용을 통해 그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을 통해 지방문화원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전통과 미래 예술과 산업이 조화로운 '창조문화강국' 구현

향후 문화원과 관련된 정책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집권당의 문화정책 관련 공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통과 미래 예술과 산업이 조화로운 ‘창조문화강국’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공약에는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실현을 선두로 하여 관광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주요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 관련 주요 공약 가운데 지방문화원 관련 내용은 지역문화성공시대를 지향한다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을 언급한 이 정책아이템은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동네예술센터(Town Art Center)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속예술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즉 지방의 폐교,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기존의 동사무소 등 동네별 유휴공간을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반영한 생활 속 문화 예술 지식커뮤니티 센터로 조성하여 지역예술가와 예술지망생의 활동거점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체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매칭투자를 통해 연 100곳씩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공공영역에 속한 기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다만 넓은 의미의 문화활동이 아닌 예술활동 위주의 공간을 지향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활동하기에 적합한 공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의 집과 주

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요구되는 것들이 이 경우에도 상당 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현재 여건에 비추어 보아 지방문화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예술인이나 단체들과 협력해서 공간을 운영하는 생활권 문화공간의 예술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또한 ‘모두에게 문화를’이라는 제목 하에 국민문화향수권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민 문화향수권 제고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계층·지역·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문화선진국’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강조되는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국민문화향수 정책,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원에도 현재처럼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 가운데 하나로서의 역할이 계속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과 진행과정이 전문화되고 성과가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분야의 정책프로그램에 주목하되 현재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공디자인의 강화와 문화원 사업의 연계 필요

또한 공약에 언급되어 있으며 문화부의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공공디자인 강화를 지향하는 정책도 지역문화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 문화원의 과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공공미술과 공간문화에 대한 정책을 강조한 만큼 이 정책은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정책은 아니다. 다만 공공성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하는 이 정책이 자율과 규제완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부합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 적용 대상이 대부분 지역임을 감안 한다면 지방문화원 입장 - 특히 도시 지역 문화원 - 에서도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부분적으로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까지 특히 도시에 위치한 지방문화원이 향후 과제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상관없이 지방문화원의 경쟁력 강화 필요

이러한 몇 가지 공약사항과 더불어 문화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언급한 지역문화진흥법의 계속 추진은 지방문화원의 과제라는 입장에서 주목을 요하는 사항이다. 지난 정부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이 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입법화된다면 지방문화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개념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향후 다듬고 따져보아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몇몇 내용만으로도 지역문화정책과 지방문화원의 여러 사업 및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을 통한 실용을 강조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만큼 경쟁을 배제하고 규제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다면 내용상 일정부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에 상관없이 지방문화원의 경쟁력 강화는 문화원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인 만큼 결국 개별 지방문화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문화원은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에 대해 스스로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공공영역으로부터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도 요구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며 지속적으로 문화원에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반도대운하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주시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분분한 한반도대운하 역시 지역문화정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운하건설은 단지 물류유통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와 관광의 역할 역시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문화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문화원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문화원 차원에서는 운하 관련 논의가 지역문화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토문화 자원조사 및 발굴, 관련 각종 스토리텔링의 개발, 해당 지역의 문화지도 작성 등이 논

의의 진행에 따라 필요하다면 과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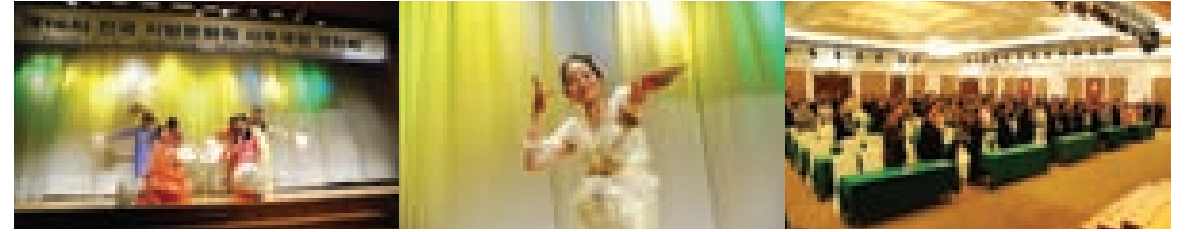
지금까지 공약 및 업무보고에 나타난 지역문화정책을 토대로 문화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언급을 위해서는 정책방향과 내용이 분명히 표명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예상해보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할 수 없다. 물론 앞서 거론한 대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관련이 있는 지역문화정책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언급된 정책방향과 내용이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디 지방문화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지방문화원도 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국 지방문화원 2008 사무국장연찬회

- 충남 태안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있는 오션캐슬에서 제16차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연찬회를 가졌다.

3월 17일 오후 2시 김동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진태구 태안군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정영웅 과장과 문정석 서기관, 한국문화원연합회 박응진 충청남도지회장과 남선우 경기도지회장, 정정희 당진문화원장과 명수남 태안문화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권용태 회장은 지난해 말 충남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지역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사무국장 연찬회를 이곳 태안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이 날 것이라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상기하면서 문화원의 핵심인 사무국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한편 금년도 국고보조금 사업과 기금사업에 있어 노인 참여형 실버문화프로그램, 향토사 연구 프로그램, 도·농문화원 간 교류프로그램,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사업 등을 균형적으로 지원, 지방문화원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무국장 여러분들이 각각 지방문화원 실정





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동완 충청남도부지사와 진태구 태안군수의 격려사에 이어 박웅진 충청남도지회장의 환영사가 있는 다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갑영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전영웅 과장의 ‘지역문화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송파문화원 김기상 사무국장과 화순문화원 지영희 사무국장으로부터 ‘송파문화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및 역사문화 환경지킴이와 문화해설사 양성’에 대한 사례발표의 시간이 있었다.

다음날 오전과 저녁시간에 열린 분임토론 시간에는 ‘지방문화원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이흥재 :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범국민 <문화원의 날> 추진방안’ (이종인 :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1사 1문화원 결연사업>추진방안’ (조정국 : 팩스아이즈 고문) ‘지방문화원문화콘텐츠 사업 육성방안’ (이병민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지방문화원의 다문화사회 이해증진프로그램 개발’ (박덕규 : 단국대 교수) ‘지방문화원 홍보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임연철 :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 등 6개조로 나누어 각각 문제제



기 및 토론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 오전 시간에 종합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연찬회를 지원하기 위해 명수남 태안문화원장과 직원들의 헌신가운데 이튿날 오후에는 기름유출 피해지역 및 문화답사길에 오르기도 하였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도 89%라는 참석율을 나타낸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국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장 선거에서 이선우 국장(광진문화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



제 16차 사무국장 연찬회 둘째 날인 3월 17일 오후에 열린 전국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장 선거에서 이선우 국장(광진문화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국장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 직접선거로 당선된 이선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장님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조하였으며 협의회 회칙의 제정에 관한 계획과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故) 양중해 지회장님의 서거 1주년에 즈음하여

숙명인양 언제나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 제주에 고목으로 또한 제주문화와 예술로 살아오신 고(故) 양중해 지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신지 1주년이 된다.

‘나는 나의 삶의 고비 고비에서 시를 써야하겠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내가 이른바 시를 쓰는 사람이면서도 이루어 놓은 작품이란 몇 편 안되고, 그 이루어 놓은 작품이라 하여도 만족할 만한 작품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를 빚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기억들이 엇그제 같다.

어떤 분이 잡지에서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잔잔해진다’고 진술했듯이 평소에 성냄이나 미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분이다. 혹 언짢은 말이라도 할양이면 얼굴이 먼저 붉어지셨다. 지회장님의 측근인사들은 ‘옛 선비의 풍채를 닮았다’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지회장께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겸양의 덕을 갖추신 분이기애 가만히 생각하면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양중해 지회장님은 시인으로써 떠나시기 얼마 전「수평선」이란 시를 남겼다.

제주도 사람들은 수평선 안에서 산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한라산의 발치라면
어디에라도 터를 잡고
수평선을 등지면 한라산
한라산을 등지면 수평선
그 누구도
길고 짧은 한평생을 수평선에 갇히어
수평선 안에서 살다가
수평선 안에서 삶을 마친다.

제주도 사람들은 수평선 밖 어디쯤에
이어도가 있다고 믿어왔으나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평선 안이 답답하면
이어도를 찾아 배를 띄워 보지만
노를 저어 나가다 보면 앞으로 나갔던 만큼씩
다시 밖으로 물러서 버리는 수평선
제주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수평선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하고
이어도에도 가보지 못하였다.

제주도에서는 해도 수평선에서 뜨고
달도 수평선에서 뜨고는
해도 달도 수평선으로 진다.
구름도 수평선에서 일어나 수평선 안에서만 떠밀려 다니다가
수평선에서 사라진다.

제주도의 수평선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조용하게 보이지만
수평선에서는, 지금도 거센 파도가 일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의
기쁨과 눈물 삶의 맥박이
쉬임 없이 고동치고 있는 수평선.

수평선은
제주도 사람들의 숙명이다.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정된 우주이다.



수평선 안에서 태어나 수평선 안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섬사람들의 애환을 오묘하게 잘 빚어낸 지회장님의 마지막 작품이기에 영결식장에서의 이 시를 낭송되던 시간에는 참석자 모두는 눈시울을 흠뻑해야만 했다.

지회장님의 영결식은 당신이 작사한 가곡〈떠나가는 배〉노래비가 세워진 바다가 있는 곳 지회장님의 근무처이기도 한 탐동 해변공연장 야외에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문화예술인장으로 치러졌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님과 양대성 도의회 의장님, 양성언 교육감 등 제주도내 각급 기관장 그리고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지난날의 업적을 생각하며 떠나는 길을 전송하며 모두는 아쉬워했다. 평생을 제주와 더불어 제주의 토박이로 살다가 떠나는 님을 보내는 마음은 어떤 말로 표현하랴.

지회장께서는 문학박사와 시인으로 1950년부터 1992년까지 43년간 교직에 몸담아 오셨다. 교직에 재직하는 동안 초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제주대학교 박물관장을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명예교수로 활동하셨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전쟁을 피하여 제주에 온 계용묵, 박목월, 장수철, 김영삼, 문덕수 등과 함께 제주문학의 싹을 트게 하였고 제주 최초의 문학동인지 〈신문화〉, 〈흑산도〉, 〈비자림〉 등을 출판하는 데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 후, 1962년 문인협회제주도지부와 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부를 창설하여 초대서부터 3대까지 대표를 맡았고 1994년 제주문화원과 2000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를 창설 2대까지 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며, 그 외에도 제주도문화재위원장, (사)영주연묵회장, 한국가곡협회 고문, 고 · 양 · 부 삼성재단 이사장, 양씨종친회 총본부회장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다.

저서로는 시집「파도」와 「탐라별곡」, 「수평선」등을 출판하셨고, 특히 지회장님이 작사한 〈떠나가는 배〉는 전국에서 지금도 많이 애창되고 있는 가곡으로서 가곡 교재에도 올라 있으며, 〈제주도의 노래〉, 〈제주시의 노래〉, 〈아름다운 서귀포〉, 〈남제주군의 노래〉, 〈북제주군의 노래〉, 〈김만덕의 노래〉, 〈제주산업정보대학교가〉를 비롯하여 각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가 등을 작사하여 오늘날에도 제주도민들과 학생들에 의해 많이 불리어지고 있다.

상훈으로는 1967년 제주도문화상, 1983년 국민포장, 1992년 국민훈장, 2004년 문화훈장 등을 받으셨다. 예총제주도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제주도문화상 제정을 건의. 문화, 학술, 예술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 시상케 하고, 지금의 '탐라문화제'를 '제주예술

제'란 이름으로 탄생시켰고 제주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수많은 향토 사료들을 발굴, 번역발간 하셨다.

지회장님의 공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제주도문화예술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에 평생 몸 바쳐 오신 지회장님의 예술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리라 생각하면서 여기 지회장님의 〈떠나가는 배〉를 소개하고자 한다.

저 푸른 물결 외치는 / 거센 바다로 떠나가는 배 / 내 영원히 잊지 못할 / 임 실
은 저 배야 / 아속해라 / 날 바닷가에 홀로 버리고 / 기어이 가고야 마느냐 // 터져
나오라 애달픈 추억이여 / 한의 바다여 / 아련한 꿈은 푸른 물에 / 아프게 사라지고
/ 나만 홀로 / 외로운 등대와 더불어 / 수심 뜬 바다를 지키련다 // 저 수평선을 향
하여 / 떠나가는 배 / 설운 이별 /

임을 보낸 바닷가를 / 냇 없이 거닐면 / 미친 듯이 울부짖는 고동소리 / 임이여
가고야 마느냐.



현태용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사무처장 / 수필가

열심히 한 걸음, 다시 열심히 한 걸음
충성의 고장 이천문화원을 찾아

이천문화원

이천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다. 쌀을 비롯해서 복숭아 도자기 온천 등...여느 도시에 뒤지지 않을 만큼 풍요로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도시다. 이 도시에서 오늘 하루도 바쁘게 이천 문화를 꾸리고 있는 이천문화원을 찾아가 보았다.



이천문화원 사무국 전경



이천문화원 이상구원장

곧장 이천문화원으로 가주세요!

이천문화원으로 가는 택시 안, 이천시민회관 3층에 원사가 있다고 해서 이천시민회관에 가자고 했다. 지방에 가면 문화원의 위치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고 시내를 달리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교통 표지판 ‘이천문화원’. 아주 커다란 글씨로 화살표까지 달려 있었다. 기우였다. 이천의 시민들은 이천문화원에 대해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 없는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길의 교통표지판은 눈에 제법 익을 터였다.

“처음 원장직에 취임했을 때 이래저래 많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물론 역대 원장님들께서 열심히 꾸려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많았거든요. 특히 저는 문화원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교통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아니 문화원이 표지판에 빠져서야 됩니까?” 이상구 원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느꼈던 취약점들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덕분이었다.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원

이천도자기축제는 지역축제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행사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이 행사의 처음은 놀랍게도 문화원이라고 한다. 첫 회에서 8회까지 문화원에서 주관하였고 그 이후에 크게 성장하여 시에서 맡게 된 것이라고, 1995년 9회 때에는 당시 문화체육부 시범행사로 채택되어서 소위 대박이 났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지역축제 르네상스의 포문을 연 것이었다. 문화원 입장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 이외에도 저희만의 특화사업으로 ‘뛰뛰빵빵 주말 버스 학교’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인데 2차로 나누어 90명씩 지원을 받습니다.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호응이 아주 좋아요.”

문화원에서 올해로 32년째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이인수 국장은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고, 주민들에게 파고 들어가 문화를 맛보게 하고 향유하는 것이 바로 문화원이 할 일 아니겠냐며 웃음을 짓는다.



가라사키정에서 기증한 도자기

일본의 도예촌 가라사키정과 활발한 해외교류사업

“저희는 다른 문화원과는 다르게 해외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마을인 가라사키정과 1992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지요. 제법 역사가 된 교류인 셈이에요. 젊은 도예가 청년 10여명 정도를 서로 교환학생으로 보내어 공부시키기도 합니다. 한 열흘씩 머물면서 각 나라의 도예문화도 체험하고 문화생활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도예라는 공통점도 있고 워낙 오래 친교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사업도 한번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 2001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 국내 여론도 그러하거나 정책적으로도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많이 중단될 때였다. 여러모로 반대 의견도 많았고,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중단하는 걸로 하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때 이상구 원장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한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조정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천문화원이 가라사키정을 방문했다. 그런데 바로 공항에 가라사키정장을 포함 15명이나 되는 인사들이 나와서 마중을 하더라.



일본 가라사키정과 협약한 국제우호친선제휴서



도자기 도시답게 도자기로 꾸며진 원장실 전경



일본 가라사키정에서 기증한 도자기. 오른쪽 도자기의 전면에는 일본이 우리의 도예술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어쩌면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는지 지금도 참 인상적입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노라며 가라사 키정에서는 역사왜곡교과서를 절대 채택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정말 반가운 말이었죠. 서로에게 믿음이 있었으므로 위기가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된 셈입니다.”

회원운영은 CMS 방식으로, 문자발송에 이르는 섬세한 고객감동서비스까지

이렇게 활발히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천문화원. 회원관리는 어떻게 궁금했다.

“저희는 현재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문화원 가족을 모집합니다. 일반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지요. 매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고정 확보합니다.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문화원이 영리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베풀 수 있느냐가 관건인거죠.”

이천문화원은 매달 일부 회원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있다고 한다. 전보, 문자, 전화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심지어 임원들한테는 직접 꽃다발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고객감동 서비스인 셈이다. 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이천시에서 하는 문화행사까지 전부 문자메시지로 시시각각 알려



올해로 32년째 이천문화원을 지키고 있는 이인수 국장

준다고 하니 정말 못 말할 부지런이다. 더욱 놀란 것은 이원장의 안주머니 사정(?)이다. 안주머니 넉넉하게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입회원서! 이원장은 어디를 가든 항상 입회원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저는 어디에 가든 사람을 만나면 관상을 보죠. 다른 관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문화원 회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예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밀죠. 저한테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문화원의 최고직인 원장도 이렇게 발 벗고 뛰니 다른 직원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업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하는 그 바탕에는 이렇게 자나 깨나 문화원만 생각하는 열심이 있는 것이다. 열심 하나로 몇 년 사이 이만큼이나 훌쩍 자란 이천문화원의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일이다. ☘



이천문화원에서 출간해온 도서들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원의 역할

회원이 힘이 되는 문화원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가까이하고, 삶의 질과 자기만족을 위해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얻거나 건전한 여가를 위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는 문화원의 발전방안과 맞물려 주목해야 하는 과제이다.

내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시작한 일은 문화원을 힘 있고 건강한 회원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원 배가운동을 펼친 결과 2006년 말 취임 당시 260명의 회원에서 지금 현재 767명으로 295%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역사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회원으로 모시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회원문화유적지 탐방을 늘리고, 문화학교운영을 회원제로 변경하였다. 회원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원의 운영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자치회를 기본으로 '회원이 참여하는 문화원, 회원이 만들어가는 문화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모두 매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화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비로소 회원 모두 진정한 문화원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원

원주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유치로 인해 유입된 인구가 늘어 원주시 인구가 30만명을 넘어,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으나 현재의 협소한 문화원 공간으로는 나날이 늘어나는 시민들의 문화 참여 욕구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원주문화원은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문화행사인 길거리 음악회, 마당놀이 공연, 청소년댄스경연대회 등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문화 활동에 목마르던 시민들에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시민속의 문화원'을 새로이 인식시켰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들 또는 원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북원문화관광투어버스'를 매주 토요일마다 운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

원주문화원

화유산을 소개하여 우리 문화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였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동양철학의 대가인 고(故) 김충렬 박사님을 모시고 동양철학 야간강좌를 개설하였는데 40명인 정원을 초과하여 70~80명의 많은 수강생이 참여하는 등 열띤 호응 아래 우리내면의 정신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변화에 맞서는 문화원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지역 문화원의 발전과 맞물려 주목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며 책임이기에 지역 문화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의 키워드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문화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문화원이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는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야 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힘 있고 건강한 회원 조직의 밑바탕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한 원주문화원 회원배가운동으로 회원의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우수한 회원들이 문화원의 조직을 견실하게 해주었다. 새로운 도약과 변화하는 원주시의 상황에 맞는 정체성 확립은 바로 건강한 문화의 조직 즉 문화원의 역량과 비례될 것이며, 향후 지역사회와 문화를 살찌우는 계기를 마련해 놓았다. ☺



강태연 원주문화원장

지방 향우회와의 연계로 지방문화원 활성화 기여

우리 성주는 영남의 큰 고을로써 고대 가야시대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1군 14현을 관할하는 웅군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융성한 불교문화를 꽃피워 곳곳에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현재는 전국 참외재배의 60%를 차지하는 참외의 고장으로 연간 총수익이 2,500억원이 넘는 부유한 농촌이지만, 반대로 문화의 수준이 많이 뒤떨어져 있고, 특히 참외라는 특산물에 밀려 문화사업이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문화원은 1968년 5월에 설립되어 약 40년이 되었지만 큰 발전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궁리 끝에 2007년부터 제10대 배춘석원장님이 취임하여 성주문화원장님께서 출향인사들과의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 예산처와 출향인사 장관, 국회의원, 기업체 등 개인별 접촉으로 특별교부세, 군특자금 등 국비 8억을 확보하여 지·자체와 협조하여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신원사 건립을 추진 중이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화원운영의 어려움을 재경 성주향우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문화사업 및 발전방안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2007년 당해 재경 성주향우회원의 고향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재경 향우회원의 고향방문의 환영식을 조선시대의 경상감사 영접의식과 같은 군수와 군의회의장 등 기관장 일행이 군 경계까지 나가 환영하는 의식을 갖는 한편, 군청에서 군정보고를 마치고 고향 문화유적 탐방과 함께 고향발전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향우회원들에게 성주 문화발전과 전망에 대한 설문으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자체장의 시정 및 개선점을 향우회에 보고 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성주 문화원을 방문하여 문화원 업무보고를 받고는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향우회원들은 한목소리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성주 문화탐방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문화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많은 협찬금을 기탁해 주었다. 그 후 재경 성주향우회에서는 재경 성주 문화사업후원회를 결성하여 매년 성주문화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정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재경 성주 문화사업후원회’의 첫 번째 사업으로 2008년도 성주문화원 문화학교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가야금 10대, 해금 10대, 크로마하프 10대, 대금 10대 등을 지원받아 지역주민들

성주문화원

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성주문화원에서는 부산, 대구, 포항, 울산 등 활성화된 향우회원들의 고향인 성주 문화탐방으로 향후 문화원 발전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문화원이 다 어렵겠지만, 특히 농·어촌 군 단위 문화원은 더욱 어렵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위탁사업만 예산을 배정해주고, 문화원 독자적인 사업비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체장이나 의회에서는 표를 의식하여 주민 숙원사업이나 공약만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문화사업에는 별 반응이 없다. 문화정책을 시장경제논리에 맞추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와 기반조성을 해야만 지방문화원이 활성화 되리라 본다.

1사 1문화원의 취지가 좋은 방안이지만 실제로 농·어촌의 기업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또 결연이 되어도 기업체에서는 1회성 생색내기가 앞서지, 장기적인 결연은 꺼리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앞서 제시한 향우회와의 유대 강화와 애향심을 자극하여 정부 고위 관리 출신이나 기업을 운영 하는 분 등 다양한 계층에 협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박기열 성주문화원 사무국장

따뜻한 사람들의 어울림이 있는 장소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문화원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어느 날 문화원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글을 써 본 적도 없고 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홍천문화원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천이라는 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지방소도시입니다. 남자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11사단이 있는 군부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인근 춘천이나 원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문화원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하루 1편씩 무료영화상영을 합니다. 처음엔 주말에도 출근해야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겁게 감상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 쪽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은 문화원에서 일하기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또한 홍천문화원에서는 매일 문화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엔 댄스스포츠, 풍물놀이, 대금, 단소를 화요일엔 서예, 기타, 난타, 수요일엔 한국화 목요일엔 민요, 색소폰, 드럼 등 각 문화학교마다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이나 지방대도시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 같은 농촌지역은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에 상대적으로 문화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운영되는 문화학교 때문에 퇴근이 늦어질 때는 가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학교 학생들 노인에서 초등학교생까지 무언가 배우려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회사생활에 매여 있는 나 자신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던 댄스스포츠와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삶이 가끔씩 지루하게 느껴질 때 어딘가에 나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취미가 생긴다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기타실력이 늘어가는 나 자신을 볼 때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살을 맞대고 어울릴 때 비로소 나의 가치를 느낍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늦은 나이에 자신의 취미를 찾으려고 나오시는 중년의 어른들께서 배우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습을 볼 때 문화원의 가치를 느낍니다.

이밖에 홍천문화원에서는 한서 남궁억선생추념식, 줄 · 장루이소령추념식, 동학혁명군추모제,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단오맞이한마당큰잔치, 전국한시대회, 청소년국악캠프, 한서문화제 전통놀

홍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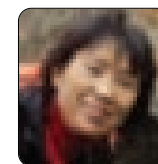
이운영, 홍천문화탐방 등 홍천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사무국장님과 들어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다보면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여 모든 일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가끔씩 이런 현실이 힘들기도 하지만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꺾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천문화탐방의 경우에는 군장병문화탐방이 있습니다. 홍천에서 군생활하셨던 분들은 홍천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천문화원에서는 홍천에서 군생활을 하는 군장병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홍천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홍천지역문화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땀뻑한 군장병들에게 하루의 휴식시간을 주고, 간식도 제공하고, 점심식사 후 오락시간을 겸해 장기자랑도 하며 버스를 타고 다니며 홍천지역의 문화재를 공부하고, 마지막엔 하이트맥주공장을 견학하고 시원한 생맥주를 시음합니다. 문화탐방을 다 끝나치면 우리 직원들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군장병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줬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직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화원에서만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입니다.

어느날은 한시대회 행사가 끝난 후 식사를 마치고 다시 문화원을 찾아 오셔서 내손에 만원을 꼭 쥐어주면서 세뱃돈이라고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양을 했지만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며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며 주셔서 받은 기억이 납니다.

홍천문화원에서 일한지 6년 정도 되어갑니다. 초등생이던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어 ‘엄마 힘들죠.’ 하며 어께도 주물러주며 생일이나 기념일이면 작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축하를 해주곤 합니다.

보람되고 힘든 일을 함께하면서 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은 점점 높아 가는데 문화원 예산은 항상 그대로인 현실이 직원에게는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점차 나아질 문화원의 현실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서 따뜻한 사람들의 어울림이 있는 장소, 일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문화원이라는 공간을 사랑하고 지금의 일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



김인숙 홍천문화원 간사

갯마을 사람들의 심성

진도의 왜덕산에 얽힌 이야기

진도 고군면 마산에는 ‘왜덕산(倭德山)’이라 부르는 산이 있다. 근래 이 산 이름은 정유재란 때 이곳 사람들이 울두목 해역에서 죽은 일본사람들 시신을 묻어주는 덕을 베푼 곳이란 뜻으로 이름 지어졌다고 전해 온다. 근래 이 같은 사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이 해역에서 죽은 일본 장수 고을사람들이 팔월 보름날이면 이 산을 찾아와 성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라면 원수처럼 생각하는 한 인사가 침략군의 시신을 거둬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군청에서 세운 안내판을 철거하라고 진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동네 사람은 일제 중기에 만든 그 집안 족보에 자기 선조무덤 자리를 왜덕산이라고 했다는 인쇄물을 내놓고 있다. 이 집안 전주이씨 석보군과 족보 외에도 연안 차씨 족보에도 같은 글자로 쓴 산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시비를 가리려면 발굴사업을 벌이는 방법밖에는 없겠다고 중재에 나서는 사람도 있다.

뱃사람들의 바다에서의 풍습

나는 이 산 이름의 사실여부를 떠나 갯마을 사람들의 심성과 풍속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구렁이나 뱀이 배 곁을 지나갈 때가 있다. 이 경우 ‘긴 것 지나간다’고 말하지 구렁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것을 금기로 여긴다. 물론 항해 중에 수사(水死)를 당한 시체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뱃사람들은 ‘대구 뗏네’라고 말하지 송장이 뗏다거나 시체가 뗏다고 말하지 않는다. 항해 중에 대구를 보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시체를 거둬 무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행법으로야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옛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고기잡이도 되지 않고 항해 중에 해난을 겪는다는 속설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바닷가에는 이름 모를 익사체의 무덤들이 많다. 요새야 해역에서 익사체가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가매장한 뒤 연고자를 수배하되 그 매장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표류 객사자들을 위로하는 곳

해류와 조류에 따라 익사체가 자주 밀려오는 해역과 갯마을이 있기 마련이다.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가 본보기 갯마을이다. 이 동네 갯가에는 표류익사체만을 장사지내는 공동묘지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은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집집마다 한상씩 상을 차려 바닷가에 늘어놓고 이름 모르는 표류 객사자들을 위로하는 헌식굿을 한다. 같은 뜻의 갯마을제사와 굿이 ‘거릿제’ ‘도당굿’ ‘헌식굿’ ‘여제’ 따위 들이다. 이 탓인지 진도 마을굿의 절대 다수가 거릿제이다.

뱃사람들의 꿈과 신을 모시는 풍습

바다를 터전삼아 생활하는 갯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땅을 중심으로 사는 물사람들과 그 풍습이나 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뱃사람 꿈 중에서 가장 재수 좋은 꿈은 송장꿈, 초상집꿈, 상여꿈, 사람죽음 보는 꿈 따위이다. 재수 없는 꿈 중 으뜸은 여자꿈이다. 바다를 여자로 보기 때문에 바다에서 여자꿈을 꾸면 여자인 바다가 질투를 한다고 믿게 된듯하다. 갯가 마을에는 대부분 남신인 산신령이나 할아버지를 모신 웃당이 있고 바닷가 밀당(아랫당)은 할머니당이라 하여 여신을 모신다. 신당 주변에는 고목들이 들어서 있고 신당 주변 나무는 꺾거나 주변에 소변을 보아도 안 된다. 나무를 꺾거나 베어내면 직맞아 죽고 오줌을 누면 성기가 부어오른다고 믿는다. 재미난 것은 당산 밑에는 대부분 당샘이 있다. 젓샘이라고도 하는 당샘물은 당제 때 쓰기도 하지만 섬이나 갯마을에 가뭄이 들 때면 그 당샘물로 살아간다. 당숲은 당샘을 보호하는 식수보호근원이다. 샘은 여성의 성기이고 숲은 성기를 둘러싼 털이다. 놀랄만한 갯가 선조들의 지혜이다. 바다는 갯사

람들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그 바다는 마치 여자처럼 시새움도 많고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와 웃음 짓는 여자는 믿지 말라고 한다. 바다는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금세 큰 파도를 일으켜 배를 집어삼켜 버린다.

바다에서의 금기, 여자

이처럼 바다는 어머니 자궁처럼 고맙고 포근하면서도 화를 내면 견잡을 수 없이 무섭다.

배에는 바다신을 모신 배서낭이 있다. 삼색비단과 한지, 신, 대나무 따위로 만든 여자인형을 만들거나 삼색비단을 묶고 여자가 많이 쓰는 실에 바늘을 꽂아 배 중심에 모신다. 배를 무어 첫 고사를 지낼 때 서낭을 마련한 뒤 제사를 모시지만 출어 때마다 제상을 차려놓는다. 해가 바뀌면 현서낭 신체는 정결한 소나무가지에 걸어두고 새서낭을 만들어 모셔야 한다. 여자신을 모셨기 때문에 배에 여자가 타면 서낭여신의 질투로 항해가 불편해진다는 속설을 믿게 되고 배에 여자 태우는 것을 싫어한다. 선원이 부인사진을 몸에 지니고 배를 타서도 안 된다. 그래도 섬 여자들은 배를 탈 수밖에 없어서 이때는 두 사람 또는 네 사람으로 짝을 맞춰 태워야한다. 실제 여자대신 여자사진 1장을 싣기도 한다.

표류자에 관련한 나라의 정책

다시 첫머리얘기와 관계되는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리자.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갯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도 해난을 당해 죽을 수도 있고 표류할 수도 있어서 같은 처지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자기 일처럼 당연한 도리로 알았던 것 같다. 이 같은 관행은 법이 생기기전의 자연법이며 신앙이었다. 일본 해적떼의 침략을 받은 조선왕조 때 군사들끼리의 전쟁기간을 제외하고 표류자가 생기면 잘 돌보아 귀국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세종 25년인 1443년 기록을 보면 국내연안에 왜국 표류자가 있으면 잘 돌보아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를 수리해주며 양식도 주도록 지시하고 있다. 익사 시체는 장사도 지내주라고 덧붙이고 있다. 1510년 경상도 삼포에서 일본사람들이 난을 일으켰고 1555년에는 전라도 연안에 들어와 여러 고을 관아를 불태우고 약탈을 벌였다. 그랬건만 조정에서는 도적질을 했거나 무기를 가진 왜놈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표류한 왜놈이 확실하면 잘 보살펴 귀국시키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군자나라의 품도요 이웃나라간의 교린 정책임을 강조한 조정논의가 여러 번 있었다. 우리가 이 같은 인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백성이 일본에 표류했을 때 당할 곤욕을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진 정유왜란이 끝난 지 10여년이 지난 1609년 기유(己酉)조약이 체결되고 일본과의 선린관계가 회복되었다.

정유난 직후인 1599년부터 일본과 다시 적대관계에 들어선 1872년까지의 273년간 한국인의 일본표류는 971건 9,770명에 달했고 반대로 일본인의 한국 표류는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1건 1,235명에 불과했다. 1609년 기유조약 때 표류자의 구호와 송환은 기착지나라의 부담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국가간 협정이전에 갯마을 사람들은 이미 표류자를 돌보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 생각했던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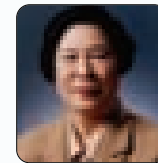
김정호 진도문화원장

새벽

창을 열자
새벽이 몰고 오는
청정한 새 기운을 맞는다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물살처럼
내일을 향한 첫걸음
빛으로
향기로
바람으로
생명 이끄는 힘을 느끼며

할 일 많은 날들
나는 내일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한다
이 새벽에.



— 김후란 시인 —

아름다운 화장실

우리 시야에 수없이 다가오는 간판이나 광고문안 또는 공공 사상의 고취를 위한 표어를 보면 먼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부터 따지는 것은 나와 같이 글쓰거나 편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겐 지울 수 없는 생리요 고질병이다.

공용화장실에 가면 으레 붙어있는 표어가 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가 그것이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는 뜻의 미학적 표현인데 나의 경우 그 뜻과 아름답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 역감정을 느끼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언어생활은 정확해야 하지만 특히 공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권유나 경구의 어법은 정확해야 한다. 화장실은 더럽고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다. 그리고 더러움을 해소하는 것은 ‘아름다움’보다 ‘깨끗함’이 절실하다.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고 강조하려면 ‘깨끗한 사람은 머문 자리도 깨끗하다’고 해야 그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깨끗이’란 말은 오물이나 험이 없는 위생적 개념이고 ‘아름답다’는 ‘예쁘고 곱다, 즉 사물의 됨됨이가 기쁨과 만족을 줄 만하다’는 뜻의 미학적 개념이다. 한자의 경우를 봐도 ‘깨끗이’는 淸이고 ‘아름다움’은 美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일 등 ‘아름답다’는 접두사가 붙으면 우선 기분이 좋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깨끗함 대신에 아름다움을 강조했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그것을 아무데나 붙여선 안 된다. 용어가 잘못 쓰였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고 개발에 달갈이며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기분이다. 심지어는 불한당에게 순결한 애인을 빼앗기는 기분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포괄적이다. 깨끗하고 곱고 예쁘고 멋있고 신선한 것의 총칭이기도 하다.

그 속성은 첫째, 연약하고 여성적이며 자유로운 것이다.

둘째,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며 친절하고 다정한 것이다. 가식과 교만은 금물이다.

셋째, 일상적인 것보다 순간적인 것이다. 오래도록 보면 싫증이 나고 슬쩍 스치듯 보는데서 매력을 더한다.

요즘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다보니 위대한 권력이 되었다. 아름다운 여성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어도 관대함을 받고 아름다운 종업원은 팁을 많이 받는다. 안내와 서비스, 세일즈 그리고 결혼에도 아름다움은 능력과 권력을 발휘한다.

입사시험에서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날씬한 몸매에 매력적인 눈매와 고운 살결, 멋있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호소력 있는 음성과 몸짓의 매력을 중시한다. 키 작은 여성, 얼굴 못난 여성들은 학력에서 고득점을 얻고도 면접에서 낙방한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아 코와 눈과 얼굴 윤곽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 심지어는 못생김을 비판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남자들도 좀더 여성적인 신체적 매력을 갖기 위해 미장원과 성형외과를 찾고 있다. 건강하고 실력 있으면서도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사랑스런 젊은이들

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아름다움이 외적으로만 중시되고 권력화 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면보다 외모만을 중시하는 것은 비극의 씨앗이다.

아름다움은 내외적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더 치중되어야 한다. 『아름다움의 과학』의 저자 올리히 렌츠는 왜 아름다움은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질까. 아름다움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다.

그는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른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문적,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란 사실 때문이라고 했다. 모든 쾌락이 영원하다면 쾌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 영원하다면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더 아름답워지고 날씬해지고 젊어지려는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나 아름다움도 사랑도 청춘도 젊음도 언젠가는 끝난다. 아름다움은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름다움 그 자체를 알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말한 ‘지식의 아름다움’, 즉 내적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화장한 여인의 얼굴보다 맨 얼굴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다. 그것은 그 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불행한 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보다 진실되고 겸손하며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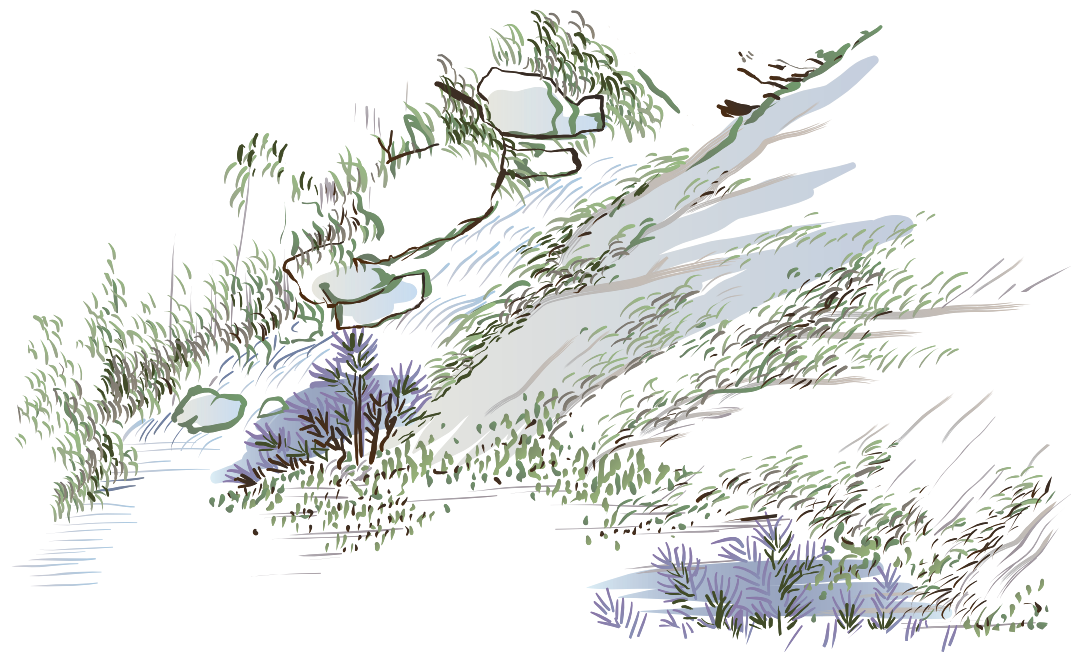
화장실에다 언제나 시들지 않는 조화 한 송이, 페인트 그림 몇 점을 해를 묵히며 붙여놓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골적이며 리얼한 춘화나 해괴한 낙서, 간·신장 매매 연락처 전화번호를 보면 저질스러움이 절절 터진다.

화장실은 급할 때 찾게 되고 그곳에 들어앉아 있는 한은 아무도 침범 못하는 나만의 비밀스런 고마운 공간이다. 대신 용무가 끝나면 바쁘게 침뺄고 돌아서는 배척의 공간이기도 하다. 배은망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함부로 침을 뱉거나 휴지나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며 정조준하여 용변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을 내려 뒤에 쓰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깨끗이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을 땐 줄을 서고 조심껏 노크를 하며 급한 사람에게는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남들이 보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몰래 안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아름다움도 남들에게 보이거나 자기 현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의 치장이 더 아름답다. 화장실도 아름다워지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강석호 수필가/문학평론가



2007년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고사업 중에 하나인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지방문화원의 고유 연구 영역인 향토사라는 주제를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애착심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특정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향토사 연구의 현실을 탈피하여 향토사라는 분야를 여러 사람들이 보다 쉽게 향토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향토사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우리문화'에서 향토사에 대한 기본개념과 향토사 연구의 실제, 또한 방향까지 내용을 담아 보았다.

특집 _ 향토사

- 향토사 왜 중요한가
- 향토사 교육의 원리와 지도
- 청소년과 함께 한 향토사 대중화 사업 : 2007 남원 마을문화유산의 재발견
- 향토사 연구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향토사 왜 중요한가.

역사와 향토사의 의미

지구상의 인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서 생활하였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류는 지상에서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이루어 놓았고, 그 문화와 역사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수많은 명칭으로 불리어진다. 공간적으로는 세계사,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지방사, 향토사 등으로 불리어지고, 시간적으로는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최근세사, 현대사 등으로 불리어진다. 또한 성격적으로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종교사, 농업사, 공업사, 과학사, 생활사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역사의 의미도 공간적, 시간적으로 각기 다른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국의 사마광(司馬光)이 중국 고대사를 서술하여 방대한 책으로 편찬하고(1084년) 그 명칭을 자치통감(資治通鑑)이라고 한 이후 동양에서는 역사를 거울(鑑)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양에서는 역사를 한 개인의 이력서(履歷書)와 같은 것이라고 하여 이력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민족사학자(民族史學者)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하여 오로지 항일 구국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일제와 싸우는 것(我와 彼我的 鬭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역사는 향토사, 지역사로 구분하고 향토사를 모체로 하여 지역사를 종합한 역사가 국사다.

어떤 학자들은 향토사를 지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으나 향토사는 한 개인이 일정한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씨족을 형성하고 부족을 형성하면서 생활했던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사는 서울지역, 경기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기호지역, 관동지역 등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역사란 향토사를 모체로 하여 형성된 보다 넓고 큰 범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향토사가 모여 지역사가 되고 지역사가 모여 국사가 되고 민족사가 되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를 남긴 인류의 조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하는 문제는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학설을 남겼다. 고려시대 일연선사(一然禪師)는 그가 저술한 『삼국유사 三國遺事』에서 “하나님의 손자 환웅(桓雄)이 태백산의 신단수(神檀樹)아래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이 되고자하는 곰과 호랑이가 있어 그들에게 쑥 한 줌과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된다고 하였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이것을 참지 못하였고, 곰은 성질이 느긋하여 백일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웅녀(熊女)가 되었다.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檀君)이고, 단군이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하였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아담(Adam)이라하고 온 누리를 다스리게 했으니 이 분이 인류의 시조”라고 하였다.

20세기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설에 대해서는 김용기 장로가 그의 저서『조국이며 안심하소서』에서 “원숭이가 인간의 형체로 진화할 수 있으나 원숭이의 이빨은 절대로 인간의 치아(齒牙)로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이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극구 부정하였다. 퇴계이황(退溪李滉)선생과 율곡이이(栗谷李珣)선생은『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에서 “이(理)와 기(氣)의 끊임없는 작용으로 우주만물이 창조 될 때 인류도 함께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어스 (Karl Jaspers)는 1969년 임종을 앞두고 “나는 왔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존재 했다 무엇 때문에 존재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간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라는 명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로 말을 하고 불을 이용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인류 문화(Culture)의 어원

일반적으로 문화란 인류가 생활하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루어놓은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역사는 인류문화 중에서도 후세에 남길만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시대를 역사가 있기 이전시대 즉 선사시대(先史時代)라고 부르고, 문자를 만들어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歷史時代)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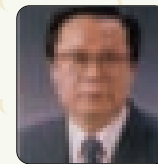
인류문화의 어원을 찾아보면 문화를 영어로 컬처(Culture)라고 하는데 컬처(Culture)라는 단어는 경작(耕作), 배양(培養), 양육(養育), 문화(文化) 등의 뜻이 있으므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것과, 우리를 만들어 짐승을 기르는 것이 인류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에서 나무열매를 따먹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경작이 편리한 곳에 정착하여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며 가을에 추수를 해야 하겠다는 정신문화의 지시를 받아 물질적인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짓게 된 데서부터 인류의 문화는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산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류가 짐승을 사육하기 편리한 곳에 정착하여 우리를 만들고 짐승을 기르는 데서부터 인류의 문화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흔히 쓰고 있는 문화 콘텐츠(Content)나 역사콘텐츠는 경작(耕作)과 목축(牧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향토사

자연에 순응하면서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전념하던 인간은 이제 농경과 목축으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가족중심의 씨족이 변장한 씨족사회를 형성하여 집단생활을 하면서 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가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은 것은 내 것이요 내가 기른 짐승은 내 것이라는 소유개념(所有概念)도 생기게 되면서 인간사회는 보다 복잡한 사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지혜가 발달하면 할수록 보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더욱 편리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힘들여 경작을 하고 목축을 하는 것보다는 남이 경작해놓은 것을 슬쩍 가져오고, 남이 길러놓은 짐승을 몰래 끌어오는 도적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보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씨족은 지배자가 되었고, 패배한 씨족은 전리품으로 노예가 되었다.

전쟁에서 이기기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자와 보다 큰 힘, 그리고 보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같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였던 씨족사회는 씨족을 통솔하는 씨족장이 필요하게 되었

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사회를 형성하면서 보다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부족장이 부족사회를 통솔하게 되었다. 전쟁이나 타협으로 씨족은 부족으로, 부족은 부족국가, 고대국가, 민족국가로 발전하여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였다. 한 개인이 출생해서 성장하며 생화한 곳을 향토라 하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향토문화라고 하며, 향토문화 중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향토사라고 한다. 향토사는 시대적으로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적으로는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중심으로 창조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는 향토사가 뿌리가 되고 모체가 되는 것이다. ☼



원영환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회장

향토사 교육 원리와 지도

- 구술사 채록 경험을 중심으로

I. 들어가기

작년 5월 인천 연수문화원으로부터 향토사 대중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명인을 찾아서’라는 사업계획을 제안 받았다. 학생들의 취재와 각색하는 작업을 지도하면 된다는 말에 얼떨결에 수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지도교사가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압담함, 제삿에 제가 넘어간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니면 문화원 쪽에서 생각한 방향과 내가 생각한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입장에서만 일을 바라본 까닭이리라.

아무튼 일을 맡았으니 최선을 다 할 수밖에. 많은 생각을 한 후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하며 겨우 취재의 실마리를 잡았다. 우선 고등학생들이 취재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에 나온 사업계획서를 수정했다. 5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11월말까지 원고와 사진을 완성해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역의 명인을 찾아가 취재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취재 대상을 보다 편하게 지역 속에 ‘숨어 사는 토박이’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체적인 취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만 무려 1달 반이 훌쩍 넘어갔다. 문화원에서는 5명 정도만 취재가 되면 성공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급하게 모아야 하는데 취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20명 정도를 모아야 할 것 같다.

II. 작업 일기

1. 학생 모집과 조 만들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쉽게 이런 사업제안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학생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학과 공부, 밤늦은 자율학습, 주말까지 계속되는 학원이나 과외 공부 등. 그러나 의외로 책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학생들도 많이 있으며, 고등학생 정도면 성인 못지않은 잠재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교사의 믿음이 전제된다면 다양한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학생들에게 모집 공고를 냈다.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독서토론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문화재 및 문화사에 대해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기행반 학생들(향토반 학생들이면 더욱 좋음), 그리고 2학년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니 모두 18명. 책에 자신의 이름이 실린다고 들어온 학생들이 태반이었다.

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조를 짜니 8조가 나왔다. 2명씩 9조가 나오기를 원했는데, 친한 학생들끼리 짜게 한 결과 3명씩 짠 조가 2개 나왔다. 각 조마다 조장을 정하고 총괄 진행을 책임감 있게 보조해줄 총 조장을 임명했다. 학생들이 1, 2학년과 각 반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클럽활동 반장을 총 조장으로 뽑았다. 총 조장이 얼마나 열심히 의도대로 움직여주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작업 후 생각해보니 조별 작업보다는 개인 작업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2~3명이 한조가 되어 활동하며 취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원고를 정리하고 각색하는 작업 과정에서 서로 일을 미루어 열심히 움직이는 몇몇 학생이 많은 고생을 했다. 사진만 전문적으로 담당할 학생을 뽑아서 취재시 동행하게 하면 서로 간에 자신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책임감 있게 일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2. 취재를 위한 준비 학습모임

1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모두 6시간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설명하고 기술방식에 대한 토의 및 취재 대상자 선정과 조정, 취재 방법, 카페에 사진과 구술기록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물론 이에 앞서 자문위원으로부터 구술자서전 2권을 전달받아 복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하였고, 각자 질문할 내용을 미리 메모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음식열전이 아닌 관계로 수정작업에 들어가 다양하게 취재 대상을 잡아보았다.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자 선정에는 부모님과 학부형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인천향토교육연구회를 10여 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지역적 특색을 살리며 대상을 선정했다.

3. 구술조사 기록사항과 채록 방법

전문적인 학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때 반드시 기록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대폭 줄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간단한 약력과 조사일정 및 녹음, 사진 확보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방학 중 채록하는 관계로 녹음기가 모두 있었으면 좋으나 아쉬운 대로 학생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MP3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인쇄를 대비해 가장 큰 용량으로 찍어야 하며, 편집 때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진마다 파일이름을 구체적으로 달아서 카페에 올리도록 했다. 또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 사진도 빌려와서 스캔작업을 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내용 정리는 각색을 전제로 했지만 각색 작업을 하려면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채록한 것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정리하여 카페에 올리게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채록된 내용을 읽은 후 개별적으로 조원들과 만나 어떻게 각색할 것인가 논의했다. 채록이

늦어지는 조들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3개조는 구술자 대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회고하는 형식과 소설 그리고 수필형식으로 각색하기로 했다. 이 중에 소설로 각색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사실 1년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해서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모두가 다양한 형식으로 각색을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작업의 진행

인천을 대표하는 대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토의를 거쳐 고서 수집 전문점 아벨서점, 먹거리 뱅뱅이와 물텀병, 개항장과 관련해서 중국인 거리, 강화도 특산물 화문석 할머니, 사할린복지관의 이주민, 묘지기, 자동차 달인, 무료국수 나누어주는 목사님 등으로 대상을 압축했다.

방학 중 집중적으로 취재하기로 했는데 출발부터 4개조가 빠져덕거리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안타까운 조는 부모님의 소개로 화문석을 만드는 할머니를 찾아 강화까지 먼 길을 갔는데, 그 마을에 화문석 만드는 할머니가 한 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허탈해하며 돌아온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바로 대상을 물텀병으로 바꾸었으나 식당 주인이 바쁘다고 취재에 응해주지 않아, 다음으로 노인정에서 할머니를 만나 취재했으나 이야기를 계속 회피하여 결국 취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조는 무료국수를 나누어주는 목사님을 만나 취재했는데 대상자가 취재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까다롭게 해서 취재 도중 포기했다.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한 학생들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

나머지 2개조도 취재 불응으로 대상자를 두 차례씩이나 바꾼 끝에 겨우 취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혹시 제대로 취재가 되지 않아 책을 출판할 수 없지는 않을까 하며 마음 졸인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아무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대상자에 대해 미리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 대가를 치른 것이리라. 그리고 식당의 선전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음식점 취재는 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쁘게 운영되는 식당은 정작 주인이 시간이 없어 학생으로서는 취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처음에 학생들이 생각한대로 음식열전으로 갔다면 우리는 모두 취재를 포기하고 두 손을 들었을 것이다. 글을 정리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

그래도 많은 취재 대상자들은 학생들이 취재를 나와서 그런지 취재 사례비를 좋은 곳에 쓰라며 수령을 거부했던 일, 진지하게 취재에 임해주었던 것, 학생들이 너무 고생한다며 책이 발간된 후 한턱 낸다고 했던 일 등 가슴 뿌듯했던 기억이 새롭다.

아무튼 9월까지 취재에 성공하여 10월 중순쯤 녹취록이 카페에 올라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원고가 나오는 대로 교정을 하고 의문 나는 사항은 학생들을 만나 물어보며 다시 재수정 작업을 반복했다. 원고 교정부터 탈고하기까지 한 달 동안이 지도교사인 내가 가장 바쁜 때였던 것 같다. 수업이 비는 시간과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원고지와 씨름을 하며 학생들과 토크를 만나 내용을 수정해 갔던 시간들, 책을 다시 꺼내들어 읽어가며 생각해보니 이때가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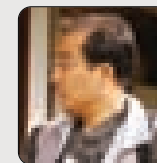
III. 맺는 말

향토사 대중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동분서주하며 열정의 땀을 흘린 학생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들은 고생한 만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한다.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지역을 사랑하게 되었고, 평범하다고 생각한 한 사람의 일생이 수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이를 헤쳐 나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는지 한 마디로 '감동 먹었다' 고 했다.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 한 줄 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생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공부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작업하는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맡겨준 연수문화원과 도와주신 자문위원분들께도 감사하고 싶다. 책이 출판되었을 때 기뻐하며 환호하던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학생들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능력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누군가의 손으로 갈고 닦이어서 찬란하게 빛

나는 소중한 보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든 쉽게 빨아들이는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당을 열어주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의 만남은 그래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향토사 대중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사의 말로 끝을 맺고자 한다. 보잘 것 없고 하찮다고 생각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흘린 땀의 기록은 진정성을 갖고 있기에 참다운 역사가 될 것이다. 역사는 어쩌면 거대한 권력자 몇몇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딛고 있는 곳곳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흔적 하나하나가 날줄과 씨줄로 촘촘히 엮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성들여 만든 이 책은 바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다. 인천 역사의 한 쪽을 너희들이 담당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



천영기 인하사대부고 국어교사

청소년과 함께 한 향토사 대중화사업

-2007 남원 마을문화유산의 재발견



종합발표회 전경

남원은 예로부터 민족의 영산인 천혜의 지리산과 또 호남 내륙문명이 시작된 섬진강의 최상류 지점 안의 거대한 호수 퇴적충분지에서 자리한 덕분에 조선조 이증환 선생은 [택리지 - 생리조] 편에 '천부지지, 옥야백리'라는 남원지리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고장이다. 그 천혜의 자연은 당연히 많은 지역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특히 전국각지에서 내, 외란을 피해 삼한시대부터 씨족소국가형태로 결집하면서부터 자연히 마을이 형성되고 지역공동체사회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근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름다운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전통이 전해오고 있다.

남원의 아름다운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전통

남원을 호남의 경주라고 주저 없이 부르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1,300년간 국내유일하게 도시이름을 지켜온 남원시민의 높은 문화적 가치추구와 향아리형 분포를 보이고 있는 풍부한 지역 지식인 인재층의 분포를 시작으로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만복사저포기로 대표되는 고전문학과 불교선종문화의 최초사찰 실상사, 국난극복을 위해 지역주민이 혼연일체로 고향을 지키는 피해가지 않은 호국충성의 시민정서, 판소리의 메카로 대변하는 국악과 지역 문화예술, 조선의 남원도공이 이룩한 현대 일본도자기 산업의 본향, 단일 지자체내에 가장 많은 30여개의 산성과 수십 기의 거대마애불,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서당, 서원, 향교를 가진 전통자산과 삼국시대의 삼국문화 모두가 녹아있는 지역문화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원지역은 현재까지도 마을문화유산 속에서 바로 앞서 말한 이러한 높은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기에 시급한 문화원형복원을 통한 문화관광적, 지역 경제적 가치창출을 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하다.

남원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한 가치창조적 남원향토사대중화사업의 시작

따라서 지역문화구심체를 꿈꾸는 남원문화원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전통문화적 자원과 문화산업적 명품 관광자원화 모색과 발굴을 위해 지난 2007년 5월에서 12월까지 문화원연합회와 국고보조를 받아 남원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한 가치창조적 남원향토사대중화사업을 위해 청소년 주체의 마을문화유산 조사사업을 남원지역 15개 면의 15개 마을에서 다양한 시도와 함께 마을문화유산의 재발견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른바 청소년 조사단을 주축으로 하여 마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남원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사회에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발표하는 형태의 향토문화 사업 '남원 향토사 대중화 사업-2007 남원 마을문화유산의 재발견'이 그것이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주요 성과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주체적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조사단을



사업운영 전 실무회의

년 상해 보험가입 등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남원문화원 사무국 중심으로 청소년 조사단 사전교육 추진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조사장면

을 구성하였다. 여러 방안들이 사전에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남원지역의 대표적인 성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 35명이 자원봉사신청 방식으로 선발되어 자칭 청소년마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이를 지원할 서포터즈를 조직하여 자문위원 1명, 전문 강사 3명, 승합차량 3대, 사진작가 1명을 비롯하여 남원시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청소년

다음단계인 2차 활동에서는 청소년조사단원들의 본 사업의 의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남원문화원 사무국을 중심으로 마을조사사업의 성공적인 활동 예상결과를 보여주는 청소년 조사단 사전교육을 추진하여 본 마을문화유산조사와 그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배경과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마을조사단의 기본예절과 녹취방법, 사진촬영기



남원시 주천면 호경마을 조사장면

간대에 3개 마을을 사진촬영, 마을어른 육성녹취, 마을조사카드작성 등을 자료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물을 남원문화원 사무국 DB에 집적화하여 전체적으로 총 5회에 걸쳐 15개 마을을 조사하는 형태로 방대한 내용으로 자료수집과 조사사업, 사후기록과 보고서작성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참여 학생들의 애향심 고취와 자발적인 활동의 계기 마련

사업의 기획취지는 원래 호남 제일의 문화유산의 도시인 남원에서 지역사회의 마을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승 문화유산을 비롯한 마을 문화자원 및 옛 농촌문화의 원형을 찾아보고 세대 간의 전승과 마을문화자원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내용을 마을문화유산 재발견의 형태로 수집하고 조사한 다음 자료의 DB화를 구축해서 마을문화유산 조사결과를 지역사회화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고 자 하는 본연의 기획의도에서 시작되었기에 2006년부터 향토사를 조사해서 대중화시키려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준비된 사업이다. 따라서 그 진행절차는 당연히 큰 어려움 없이 그해 12월 각 청소년조사단 조장들의 발표로 성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종합보고회를 갖는 마무리까지 많은 성과와 자료구축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원래의 기획의도대로 남원 지역의 향토사 및 마을 문화유산의 세대 간 계승을 통한 대중화 기초의 마련과 청소년 주축의 조사단 구성의 자원조사 프로그램진행으로 지역 향토사에 대한 도내 지방언론들이 특별보도를 하는 등 호평을 해 주었고 또한 향토사 대중화 조사보고서, 아름답게 끝난 종합발표회 역시도 기존의 향토사 연구



마을조사후 문화재청소

물과는 다른 청소년시각의 연구 성과물과 마을조사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절절한 애향심 고취는 직접 마을문화재청소 등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문화재보호활동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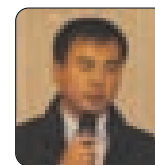
향토사 대중화사업 시행의 의미와 가치

따라서 2007 남원향토사대중화사업의 성과는 청소년조사단을 외곽지원한 분들에게도 감동이 되었다. 특히 김주완 남원 성원고등학교 학생주임 선생님, 문화유산해설가(김용근님, 김혜영님, 김혜영님), 남원문화원 사무국, 남원시자원봉사 종합센터가 모두 만족한 형태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마을문화유산 조사는 조사마을의 기본적인 마을유래에서부터 자연환경, 문화유산, 인물, 농 특산물과 인물, 민속행사까지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회의가 10여 차례 계속해서 가동이 되었고 부족한 마을조사사업 뒤에는 또 보완조사까지 재차 하는 등의 열띤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2007년 12월초 성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종합보고회를 여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었다. 더욱이 이 사업에 대한 청소년 조사단 스스로의 냉정한 집단평가와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청소년 주체적인 지역문화유산보호의 문제점까지도 스스로 인식해내는 성과까지 이루어졌다. 이번 남원향토사 대중화사업은 남원지역에 많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약 500여개의 마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욱 고무적이었던 것은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읍면동지역 어른들의 살아있는 애정(청소년 조사단을 위해 심지어 돼지까지 잡아 대접해 주기까지 했다)을 몸소 겪는 소중한 문화적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엄하고 가치 있는 활동의 결과였다. 이러한 2007년도 청소년 조사활동의 소중한 체험은 아래의 일정과 해당 마을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어서 더욱 빛이 더했다.

- 7월 7일 (1회) : 주천면 호경리, 수지면 고평리, 송동면 세전리 조사활동
- 7월 21일(2회) : 주생면 백일리, 금지면 택내리, 대강면 평촌리 조사활동
- 8월 4일(3회) : 대산면 운교리, 사매면 도촌리, 덕과면 만도리 조사활동
- 8월 18일(4회) : 보절면 도룡리, 산동면 목동리, 이백면 효기리 조사활동
- 9월 1일(5회) : 인월면 건지리, 아영면 봉대리, 산내면 상동리 조사활동
- 9월 15일(6회) : 마을 보완조사 (고평리, 평촌리)
- 10월14일(7회) : 마을 보완조사 (봉대리, 건지리, 만도리)

그렇게 청소년 마을문화유산 조사단과 남원문화원 사무국, 서포터즈 선생님들은 스스로 신명이나 있을 만큼 진지하게 마을 문화유산 조사사업에 심취했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처음 1회 조사 때 보인 모습과 마지막 7회에 보인 모습이 너무 극적으로 달라 모든 청소년 조사원들의 어른과 마을유산을 대하는 자세가 180도 다른 모습에서 이번 사업의 극적인 효과와 향후 전개될 2008년의 일정또한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조사 자료의 정식 도서출간 등의 대책마련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2007년도 향토사대중화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조사단의 입에서 ‘또 마을문화유산 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는 공식의견을 스스로 없이 각종 인터넷에 직접 올릴 정도의 당당한 모습을 유도해 낸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는 이 향토사대중화사업의 성과물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후속 지원사업의 규모나 내용면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 조사결과물의 향토 사료화 정식 발간 지원과 전국적인 확대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밀도와 순도 높은 향토사 대중화사업의 전국연계로 향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대추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박찬용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2007년 전북 남원문화원 향토사 대중화 시범사업
사업성과 정리표

사업개요	○ 사업명 : 남원시 향토사대중화 사업(= 2007 ' 마을 문화유산의 재발견) ○ 기간 : 2007년 6월 15일 ~ 12월 6일 ○ 지역 : 남원시 관내 15개 마을 ○ 내용 : 청소년 조사단의 1면 1촌 마을조사 및 사업결과 정리 ○ 자문위원 : 김 주 완 (성원고) ○ 조사활동지도 : 김용근, 김혜영, 김혜영 ○ 총괄팀장 : 박 찬 용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사업성과	○ 참여자 - 소속 : 남원성원고등학교 1학년 자원신청자 - 인원 : 35명 - 담당교사 : 김주완 주임 선생님 외 담당교사 2명 및 전문 강사 3명 - 팀 구성 : 3조로 구성 (각 팀당 5개 마을 총 15개 마을 조사) (각 조별 : 전문강사1명, 담당교사1명, 조사원12명, 차량1대)
	○ 활동 - 현장 조사(방문) 일수 : 8일 (총 15개 마을 500여명 주민 참여) - 토론회(모임) 수 : 10 회 - 수집 결과물 : 마을조사 사진 및 인터뷰녹취록, ppt자료, 기록카드 등
	○ 발표회 - 장소 : 남원 성원고등학교 대강당 - 일시 : 2007년 12월 6일 - 내용(순서) : 사업취지 설명 - 마을조사보고 브리핑 - 질의응답 - 참여 인원 : 150명, 문화원연합회 사업담당 참석
	○ 보고서(결과물) - 제목 : 2007 ' 남원 마을문화유산의 재발견 - 목 차 : 향토사대중화사업취지-마을기본소개문-조사보고서-구술자료-사진 - 분 량 : 50쪽의 단행본 분량 (300쪽 분량의 정식출판물 자료축적) - 부 수 : 발표회용(300부) 활용 (도서출판용 자료는 별도 비축) - 발송처 : 남원시 관내 각급 학교, 도서관, 전국문화원, 문화시설 전반
향 후 운영계획	○ 홍보성과 (연합뉴스 및 지방일간지 6개 언론사의 특별보도 성과) - 남원 기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널리 애용할 수 있는 효과 - 전국에 남원향토사를 대중화시키는 계기 및 실제적인 홍보효과 배가 - 마을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격려의 쇄도
	- 남원지역 청소년과 성인세대와의 세대간 연결고리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청소년 조사단의 지속적인 마을조사사업 실시 및 동아리 지원활동 병행 - 남원의 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남원학 기록사업의 향토 사료로 체계화 축적
건의사항	- 1회성이 아닌 향토사대중화사업의 중요성인식을 통한 향후 지속가능한 지원으로 연계되고 조사결과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한 정식출간이 있었으면 함. - 지원규모 확대 (1000만원수준)필요, 네트워크실무회의를 통한 방향점검 확대

향토사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일본의 한 지역역사연구소의 소개를 곁하여



1.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가 한창이다. 이 글이 나갈 무렵이면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선출된다. 그런데 요즘의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보면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이 공약이 지역을 위한 공약인지 국가를 위한 공약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방일수록 공약은 지역에 밀착된 것이 될 수 있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이 지역구의 공약과 저 지역구의 공약이 반드시 다르지 않고 그다지 많이 다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이 없고 모두 동일화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신림동에 살든 사당동에 살든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향토사 또는 지역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향토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향토의 역사, 향토의 과거를 연구하여 향토의 선인의 업적이나 습속의 유래 등을 밝히고 향토애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향토사란 향토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일정 지역의 토착성·지방성·국지성·고유성 등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한 일정한 애착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향토사와 유사한 단어로는 지방사, 지역사, 향촌사 등이 있

다. 지방사는 서울이나 중앙에 대비하는 의미에서의 지방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향촌사는 향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지역사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일정한 한 부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역사라는 말은 향토사, 지방사, 향촌사 보다는 학문적 객관성이 보장되는 듯한 용어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학계에서는 향토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 대신 지역사, 향촌사, 지방사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것은 향토사라는 말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의 발로에서 자신의 지역의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기술한 것이어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즉 향토사는 자기중심적인 역사인데 대하여, 지역사나 지방사, 향촌사는 객관적, 제3자적 시각에서 본 지역의 역사인 것이다. 지방사나 지역사, 향촌사는 일정한 지역 단위나 행정 단위를 기초로 한 역사이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는 전체사를 구성하는 한 부분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우리나라에서 향토사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문화원이 될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정식으로 ‘○○향토사연구소’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한 어떤 곳에는 지역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문화원에서 자기 지역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지역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의 편찬, 교양서나 정기간행물의 간행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지역의 역사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추구하여 왔다. 또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임시로 지역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시(군)사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군)지, 시(군)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최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지역의 지방지는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호화로운 지질과 장정, 나아가 CD롬으로까지 출판된 것도 있다. 그런데 실상 각 지역에서 편찬된 시(군)지나 시(군)사는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그리고 시(군)의 현황에 이르기까지 그 편찬 체제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체제가 같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으나, 그 내용까지도

거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조선후기나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시(군)지가 더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기존의 시(군)지를 베끼는 식의 편찬보다는 오히려 조선후기, 말기,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시(군)지를 번역해서 간행하거나 복간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나오는 시(군)지나 시(군)사의 겉모습의 화려함에 비하여 그 내용이 빈약한 것은 지역의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견문한 바 있는 일본의 한 조그만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향토사가 어디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소개하려고 하는 지역은 일

본 나가노현(長野縣) 이이다시

(飯田市)이다. 나가노현은

일본 본토의 한가운데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

지르며 종단하고 있

는 현인데, 이이다

시는 나가노현의

남부, 나고야시

의 북쪽에 있는

인구 10여만 정도

의 조그만 시이다.

이렇게 조그만 산간

지역의 분지에 있는

농업을 위주로 한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그

곳 출신 인형작가인 이치가와 모



토기하치로(市川本喜八郎)를 기념하는 인형미술관, 역사연구소, 공민관, 문화회관, 시립 도서관, 미술박물관, 조교(上郷) 고고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이 있다. 이중에서 필자와 관련이 있는 역사연구소의 활동을 소개해보기로 한다.

역사연구소는 “이이다 시모이나(飯田下伊那)의 새로운 문화거점이 될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는 동경대학의 요시다 노부유키(吉田伸之) 교수는 “이 지역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대학 수준의 고급 연구 성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역사연구소에는 겸임인 요시다 교수를 연구부장으로 하여 전임연구원이 3명(각각 근세사, 현대사, 건축사 전공), 조사연구원이 3명, 고문연구원이 8명, 객원연구원이 13명이다. 이중 전임연구원 3명만이 상근하며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조사연구원이거나 고문연구원, 객원연구원은 겸임이다. 이들 3명의 전임연구원의 업무량과 그 성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역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한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크게 (1)조사연구 활동과 (2)그 조사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조사 활동은 자신들의 지역인 이이다(飯田)·시모이나(下伊那)를 소재로 하는 역사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앞에 소개한 연구소의 전임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원, 고문연구원, 객원연구원들이 기초 연구 및 기초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이다 역사연구소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근세 고문서와 근현대 역사 자료, 구술 자료, 건축사 자료 등을 조사·수집하고 그 성과를 조사보고서나 연구서로 간행하였다.

둘째 역사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조사, 연구된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①조사연구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정례연구회를 개최한다. 예를 들면, “[만주 이민(滿州移民): 이이다 시모이나로부터의 메시지(飯田下伊那からのメッセージ)]를 읽음”이라는 정례 연구회에서는 동 연구소가 작년에 간행한 시민라이브러리의 첫째 권인 [만주 이

민]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읽은 동경대학 교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독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일본판 폴리처상이라고 불리는 평화·협동저널리스트기금의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시민 모두에게 「만주 이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과 함께, 이 책의 특징이나 과제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의 연구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문연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②역사연구소에서는 [이이다 아카데미] 시민강좌를 개설하였다.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연구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연구의 최첨단 성과를 알기 쉽게 강의하는데, 그 수준은 대학 전문과정 역사학 강의와 같은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해명한 연구성과, 일본사학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학 연구의 최신 성과, 외국사나 인접 여러 학문분야---건축사, 미술사, 민속학, 역사사회학 등의 성과, 연구소의 전략으로 중요한 논점, 방법 등(고문서학, 역사고고학, 아카이브즈학, 박물관학 등)을 취급한 강의이다. 매 강좌는 90분 4회로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을 이용하여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지역사 강좌(지역의 역사를 제재로 최신의 지역사 연구의 성과를 전임연구원이 강의), 역사세미나(근세사/ 근현대사/ 현대사/ 건축사 등을 일반인 및 고교생 대상으로 하는 공부 모임) 등의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강좌나 세미나, 연구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출판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조사,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 연구 성과로 간행된 [(영위하고 일하는) 이이다의 발자취(いとなむ はたらく 飯田の歩み)]와 [(보고 읽고 배우는) 이이다의 역사]는 이이다시의 일반 시민들의 구술을 받은 것을 책으로 만들어 함께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지인 [이이다(飯田)역사연구소연보]를 연 1회 간행하고 있고, 조사연구의 성과를 보고서로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예를 들면, [자료집 시보(時報)·촌보(村報)에서 보는 「만주」 이민]. 이 자료집은 일제시대에 옛 촌락마다 발행되었던 신문「시보」나 「촌보」에서 「만주」 이민에 관한 기사를 발췌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의 걸어온 길의 집적이므로, 시민이야말로 지역사의 주역이라는 자세로 지역의 전체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의 발걸음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 즉 오랄 히스토리를 채록하는 일

을 전개하여 그 보고서로서 [반아적읍 이이다 도시의 생활(聞き書き 飯田町の暮らし)]을 연속적으로 간행하였다. 즉 근대 이후 지역의 사회사를 구술사로서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의 모습 외에, 운송업이라든가 화류계, 과자 등의 업계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성과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쥬니어 라이브러리]를 간행하여 이 지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철로인 이이다선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들의 이이다선(わたしたちの飯田線)]이라는 책도 간행하였다. 또한 이 지역 출신의 유명한 농업사학자인 후루지마 도시오(古島敏雄)의 저작집도 복간하고, 격월로 간행되는 뉴스 레터를 통하여 연구소의 활동이나 행사 등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1년간 이 지역에 관한 연구나 저술을 대상으로 하여 수상하는 [이이다 역연상(飯田歴研賞)]과 소액이지만 젊은 학부, 석사 과정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구활동조성비도 주고 있다.

3.

이이다 역사연구소의 활동은 물론 너무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10만여 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산촌 지역에 전국의 우수한 중진학자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쉽게 강의하는 것은 의욕은 좋겠지만,



그 내용을 지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연구소에서는 가능한 한 그 조사연구 활동의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자기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의 관련 문헌이나 설화 등을 망라하여 수집하고 그것을 통하여 파악을 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참고를 하는 자료는 그 지역의 읍지(邑誌)가 될 것이다. 요즈음의 지방행정 단위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지역행정단위 2~3개 정도의 군현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시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에 관한 읍지가 2~3개 이상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도시 지역의 확대에 인하여 과거의 행정 단위였던 곳이 2개 내지 3개 이상으로 분산 편입되어서 명확히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기 지역의 역사를 알기 위하여 대개의 문화원에서는 자신의 지역 읍지를 복간하거나 젊은 독자들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읍지 자료를 통하여 지역의 유래나 산물, 전설이나 설화, 유명한 선조, 효자·열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근대 이후 현대에 들어와서의 자료들은 최근의 것이므로 대개의 경우 읍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혹 지역에 따라서는 일제시기나 최근에 읍지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증보되어서 근대 이후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읍지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 지역의 고문서나 고서, 유적들을 조사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이 지역의 향토사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미지 자료로 촬영하고 정리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근대 이후의 역사는 지역의 기록 이외에도 지역의 유지나 지역 출신 인사들의 구전(口傳)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지역 유지나 명망가들만이 그 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의 지역에서의 삶도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수집하고 서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술 자료나 조그마한 자료라도 수집하고 보존하여 지역의 근현대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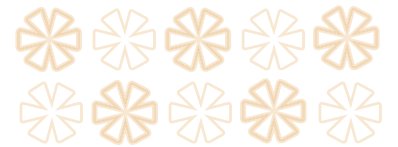
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서 써주어야 할 것이다. 쉬운 문장과 이미지 자료를 통하여 일반 주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향토사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



김현영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연합회 향토사 대중화사업 소개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2007년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고사업 중에 하나이다. 이 사업은 지방문화원의 고유 연구 영역인 향토사라는 주제를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애착심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특정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향토사 연구의 현실을 탈피하여 향토사라는 분야를 여러 사람들이 보다 쉽게 향토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향토사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전년도에는 모두 11개의 지방문화원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기 고장에 전해오는 설화를 활용하여 동화책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직접 돌아다니며 문화유적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등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였다. 무더운 여름 방학 동안 고장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사업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기 지역의 향토문화의 가치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07년도 사업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올해 사업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올해는 특히 향토사 대중화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모색하고, 참여 문화원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였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 마련한 주요 프로그램은 향토 문화 조사사업, 향토사 관련 교육 자료 제작사업, 향토문화 콘텐츠 사업을 비롯해, 유사 권역에 속한 문화원이 공동의 사업 주제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통합·연계형 사업이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에서는 시도지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설명회와 중간평가, 그리고 종합평가회 등을 마련하여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서종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향토사대중화사업담당자/계장

서울, 경기도 아리랑의 가락 속으로

— 원로 서양화가 김정의 작품으로 보는 아리랑

단성사로 보는 우리의 아리랑

그림으로 보는 아리랑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의 노래와 고장을 살펴본다. 경기지역은 서울의 이웃에 위치한 까닭으로 아리랑의 문화 역시 서울과 비슷한 멋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한양의 곡식이나 도자기 등 생필품을 공급, 교류해 오면서 서울의 문물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면, 서울 경기의 아리랑을 단성사로부터 출발해 본다.

‘아리랑’이 춘사(春社) 라운규 감독의 무성영화 ‘아리랑(1926년 작)’에서 비롯됐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제작을 준비 중인 라운규 감독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봄의 역사>의 시나리오에서 ‘아리랑의 탄생’을 엿보기로 하자.



가평아리랑

S# 무성영화 <아리랑>이 상영되고 있는 경성(서울) 종로의 ‘단성사’ 안 영화 <아리랑> 필름이 돌아가고 있다.

스크린 위. 라운규(영진 역)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 고향 마을을 떠나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고 있다.

극장 앞, 어두컴컴한 악대석 안에서 처량한 멜로디의 ‘아리랑’이 바이올린을 타고 흘러나온다.

가수 이정숙이 무대 한 쪽에서 화면에 맞추어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이정숙 : …문전옥답은 어디다 두고 쪽박 살림살이가 웬 일인가…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기저기서 관객들이 훌쩍이고, 울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변사 : (관객들을 향해) 여러분, 다 같이 아리랑을 불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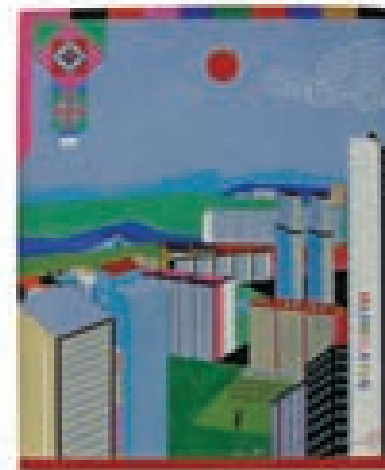
화면도 울고 변사도 울고 관객들도 다 같이 목 놓아 운다.

극장 어디에선가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터져 나온다.

임석경찰 :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고라! 찌쿠쇼!! (이것들이! 제기랄!!)

관객들, 객석에서 일어나며 “조선독립만세!!!” 외치기 시작한다.

—시나리오 <봄의 역사> (이석현, 김정원 작) 중에서—



분당아리랑



서울남산아리랑

이렇게 탄생된 ‘아리랑’은 지금도 팔도강산 도처에 깔려 있다. 30여 년 동안 ‘아리랑’을 화두로 정진해 온 원로작가, 김정은 서울, 안성을 비롯해 수원, 파주, 가평, 심지어 분당과 용인에서도 아리랑의 선율을 회화작업으로 짚어 낸다.

경기의 여러 아리랑들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가 보자. ‘아침고요’라는 이름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한국 정원



서울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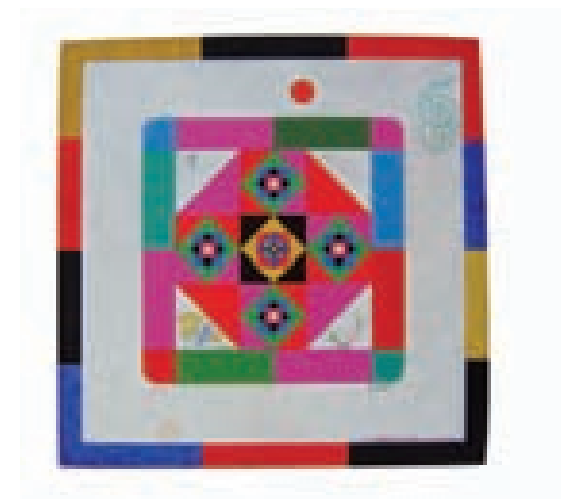
을 한국자연의 아름다움, 즉 곡선, 비대칭의 균형을 울타리 안으로 옮겨놓았다. 원예미학적인 관점으로 한국의 미를 반영하여 계절별, 주제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정원들로 꾸며져 있는 것이다. 아침고요 수목원의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 〈가평 아리랑〉이 스며 나온다.

〈안성 아리랑〉이 신명난 팽과리 가락과 함께 들려온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 물산의 중심지, 전국의 상인이 모여들었던 안성장터. 그러기에 이곳은 남사당의 텃밭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영화 ‘왕의 남자’의 남사당패들은 안성 청룡사에 터로 잡고 아리랑 가락과 함께 예인의 기를 한껏 펼쳐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리랑은 수원에도 가 있다. 이곳의 아름다운 화성(華城) 수원성은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답다’고 하는 아리랑 노래와 함께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드라마 ‘이산’의 주인공 정조대왕(이산은 정조대왕의 본명)이 기획하고 집행했던 신도시(지금의 파주, 분당과 같은) 개발프로젝트! 그로인해, 수원으로 몰려들었을 수많은 물품과 노동력



수원팔달아리랑



안성아리랑

들은 상상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면서 안성장은 그야말로 ‘작살이 났으니’ 이 또한 돌고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니겠는가?

일상 어디에나 있는 우리 가락

여류작가 님 웨일즈가 중국 옌안(延安)의 루쉰(魯迅)도서관에서 김산(本名: 張志鶴)과의 대담을 통해 만들어진 책 ‘Song of Ariran’ (1941 *Arirang이 Ariran으로 잘못 표기된 것임) 안에는 남산 소나무가 노래 ‘아리랑’ 과 함께 등장하는데, 지금 김정의 그림 〈서울 아



연극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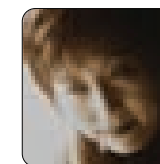


파주아리랑

리랑>에서 다시금 기지개를 펴며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600년 동안 수도 서울을 내리 굽어보며 살아온 저 남산 위의 소나무들은 얼마 전, 불타서 쓰러지는 숭례문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슴 속도 까맣게 타들어 갔으리라...

논둑길을 돌아 소나무가 있는 저 언덕에도, 주막 모주꾼의 목 쉰 가락에도, ‘대~한 민국!’ 을 외치는 월드컵 경기장에도 아리랑은 한국인의 가슴에서 저절로 불리고 있다. 이제 아리랑은 우리의 ‘축제와 같은 아픔’ 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물머리(=양수리兩水里)에서 만나 한강을 이뤄내 듯, 팔도강산의 모든 강물들이 울울탕탕 소리치며 흐르듯, 아리랑은 흐르고 흘러 우리 겨레의 혈맥(血脈) 속으로 스며들어 굽이치는 한 옥타브 낮은 사랑인 것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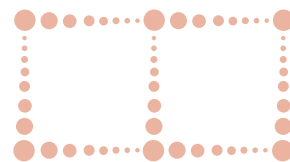


김경원 극작/연극 연출가

도자기에 상상력을 불어넣다

전통악기와 도자기를 접목시킨 권오학 · 김경미 부부

도자기 마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곳인 경기도 이천.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문가에는 쌓아둔 도자기가 즐비하다. 역시 도자기 마을의 풍경답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이색적일 수밖에 없는 풍경에 길을 가다가도 절로 시선이 멈춰진다. 도자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마을에 더욱 이색적인 것이 있다고 하니 따라가 보자.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와 도자기의 만남

금모을요를 운영하고 있는 권오학 · 김경미 씨. 이곳도 얼핏 보면 다른 공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구조다. 한쪽에 자리 잡은 가마, 유약을 바른 도자기, 점토를 빚는 기계 등 다른 곳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 때 시선을 끄는 도자기 하나의 모양이 이상하다. 그릇이나 컵, 화병과 같이 어울려 구워질 순간만을 기다리는 장구 모양의 도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모을요의 대표적인 작품인 도자기 장구인가 보다.

“처음 도자기 장구를 만들었던 때가 벌써 10년쯤 되었네요. ‘뿌리패’라는 타악 그룹을 하던 친구의 부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외국공연이 많은 터라 기념품을 만들어달라고 했었죠. 그들의 특성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접목시키고자 고민하다가 도자기 장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도자기 장구의 반응은 실로 뜨거웠다. 장구의 형태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감기법을 사용해 구운 특성 때문이었다. 그러자 부부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제 크기로 만들고 싶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모형 정도의 장구를 실현하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실제 크기라면 정말 제대로 배워야만 했다. 도예에 관해서는 부부 둘 다 전문가였지만 실제 장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온 지방의 장구를 만드는 분들은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도자기 장구를 직접 쳐보는 권오학씨



2002년 월드컵기념품으로 만든 도자기 장구



도자기 장구, 상감기법이 잘 어울린다.



여러 모양으로 멋을 낸 도자기 장구들



모든 작품들은 일일이 다 수작업이다. 정성으로 빚는 것이다.

전통악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선 10년

“한번은 양재 예술의 전당 앞에서 봉고차에 쓰인 글자를 따라 팔당까지 쫓아가기도 했어요. 불일을 보러 근방에 들렀다가 봉고차에 쓰인 장구 관련 글귀에, 하던 일도 팽개치고 쫓아간 거죠. 팔당 어느 곳에 이르러서야 봉고차가 쏘고 사람들에게 따라온 이유를 말했더니 그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분 인연을 맺게 되었죠.”

이렇게 도자기 장구를 만들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장구 공예 전문가들을 쫓아 다니며 기술을 익혀나갔다. 기본적인 장구 공예에 대한 기술을 익혔지만 이것을 도자기로 굽는 것은 두 사람의 몫이었다. 장구의 잘록한 허리 부분 때문에 빚다가도 잘 망가지고 겨우 빚어 가마에서 굽노라면 뒤틀리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10개 중 1~2개 성공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오랜 노력 끝에 도자기 장구를 제대로 빚을 수 있게 되었고 각종 도예공모전을 휩쓸기도 했다. 2007년 경기도 관광공모전에서 장구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실물 크기의 도자기 장구는 그 모양이 유려할 뿐 아니라 그 소리가 보통 장구의 3~4배에 달했기 때문에 대형공연에서 도자기 장구를 가지고 공연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차차 흙으로 악기를 빚는 데 익숙해지자 다른 악기를 빚어보기도 했다. 그 결과로 최근 ‘이천도자기공모전’에 공모한 ‘청자퇴화박지매화문 가야금’으로 대상을 받은 것이다. 청자 가야금에 매화무늬를 새겨 넣은 것으로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서로 다른 성격덕에 더욱 찰떡궁합이라며 환하게 웃는 부부

도자기에 불어넣은 상상의 미래를 보다

“우리나라의 도자기 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수요는 한정적인데 생산은 포화상태니 유통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요즘 사람들 생활용품으로 상감기법의 그릇을 사거나 하는 일, 드물잖아요. 그런데다 도자기에도 유행이 있어서 민감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낙오되고 말아요. 이렇게 사정이 어려우니 사람들은 소품종 대량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다양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도자기에 장구를 접목시키는 순수한 즐거움이 그 시작점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사실이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그런 사소한 상상력에서 이 부부의 작업이 더욱 빛나는 것이라. 남편 권오학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작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작업을 할 때마다 도자기에 불어넣는 상상력에 대한 기대로 힘든 시간을 이겨낸다고.

“장구를 똑같이 빚어도 각기 다른 소리가 나요. 물론 구조적인 차이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겠지만 아마 제가 불어넣은 숨마다 제 색을 갖고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부부의 열정으로 오늘도 가마에 들어간 도자기들은 제각각의 색으로 상상력을 몽글몽글 키워나간다. ☼



한옥을 타고 여행하다

— 한옥 여행자 카페 ‘緣(연)’을 찾아서

삼청동 좁은 골목 사이로 작은 간판 하나가 보인다. 짧고 명료한 한 글자 緣‘(연)’이 가파른 골목과의 연으로 이곳에 자리 잡은 조용한 한 글자가 손짓을 한다. 호사스럽지 않지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연의 내부,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책들로 가득한 좌식공간이다.

삼청동의 여행자를 위한 카페 ‘연’

유명한 화가인 고흐를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섰던 프랑스 아들의 한 카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반 고흐, 그가 남긴 몇 점의 작품 때문이다. 그가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와 카페를 담았던 그 어느 밤 그를 잡아두었던 공간은 지금 이 세기에, 그리고 전혀 다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영혼의 쉼을 얻는 유랑객의 쉬어감의 비슷함 때문일까.

한낮의 삼청동은 여전히 조용하다. 근래 5년 사이 변화의 바람을 탄 것도 사실이지만 평일의 동네는 그런 소란스러움도 잊은 채 나른하게 개나리나 목련을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다. 근처에 새롭게 생긴 카페들에 비하면 이 동네의 터줏대감격인 카페 ‘연’은 이렇게 별 좋은 봄날에 더욱 어울리는 집이다. 열 몇 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니 이곳이야말로 예전에 머물던 할머니의 집처럼 정겨움이 가득 묻어난다.

“처음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40개국 남짓한 나라로 배낭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나라 고유의 가옥 구조에 대해 감탄을 하게 되었구요. 그런 것이 한국에 돌아와 연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행지에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거나 이름이 나있는 곳이 아닌 이런 사소한 일상의 풍경이 여행자에게는 훨씬 감동적인 법이다. 카페 연의 주인장 이인식 씨도 그렇게 사소함의 매력을 놓을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연이 생겨난 것이었다.

작지만 단단하게 여문 한옥

이곳은 북촌의 새 한옥 짓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송인호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가 설계를 맡았는데 ‘작지만 단단하게 여문 한옥’이라고 표현했다는데 바로 공간 활용을 잘 했기 때문일 것이다.

열 명만 들어와 서도 가득찰 것 같은 안마당에는 작은 좌식 탁자를 놓아 차를 마시거나 해바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야외 파티나 상설 연주회장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인도의 현악기인 시타르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고.

사랑방의 큰 창이 좁은 공간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좌식공간인 이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따끈한 아랫목의 느낌이 어릴 적의 한옥집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예전처럼 아랫목에서 보던 검은 그을음을 만드는 구들장은 아니지만 단정한 나무질감이 그 느낌을 살려준다. 창을 열면 밖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 모습도 정겹다.

부엌의 위로는 다락방이 있고 아래로는 창고가 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셈인데, 이 두 곳은 카페 ‘연’의 숨은 보물과 같은 곳이다.

책 갈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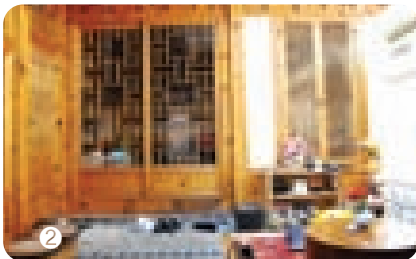
나그네도 쉬어가는 한옥의 한 귀퉁이

어릴 적의 기억 때문인지 이 곳 주인장의 마음 씀씀이 때문인지 이곳에 발을 들이면 낯선 공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혹은 어릴 적 할머니 집에 들른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아마 오랜 시간 많은 곳을 다니고 보아온 주인장의 배려와, 비록 전통 한옥의 구조는 아니지만 개량 한옥으로서의 운치 때문이 아닐까. 바깥에 탐닉하는 여행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고향에 대한 향수일 것이다. 무수한 인연을 만나고 그 매듭을 짓고 풀고 하는 동안에도 떠나온 것에 대한 그리움이 남기 때문일까. 아스라이 남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잠시 머무르는 것도 좋겠다.

문의 02) 734-3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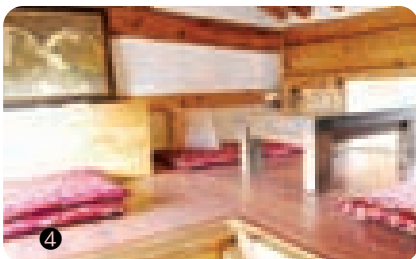
1



2



3



4



5

- 1 다락의 창에서 보이는 삼청동의 풍경.
오밀조밀한 기와지붕을 보는 것도 묘미다.
- 2 마당에서 바라본 풍경. 문살의 모양에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된다.
- 3 마당에서 하늘을 보면 장난스럽게 꾸며진 지붕도 눈에 띈다.
- 4 연의 보물같은 공간, 다락. 앉으면 창을 통해 마당이 훤히 보인다.
- 5 연을 이끌어가는 주인장, 이인식씨

조선의 정궁 경복궁

종로문화원 발행

경복궁은 근세조선 오백년의 정궁이자 법궁이었다. 한양 도읍의 요람으로서 정궁으로 창건되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270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되었다. 이때 중건된 경복궁은 330여동의 건물들이 빼곡이 들어선 웅장한 모습으로 왕과 관리들의 정무시설, 왕족들의 생활공간, 휴식을 위한 후원공간이 조성되었지만 일제 강점기를 맞아 대부분 철거되고 근정전 등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고, 그나마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어 궁전 자체를 가려버렸다. 다행히 1990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貞洞 歷史의 뒀안길

서울 중구문화원 발행

조선 태조께서 사랑하던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에서 유래한 동명으로 일제에 의한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을 겪으면서 대한제국의 성립과 고종황제께서 광무개혁의 핵심인 구본신참(舊本新參) 실현과 자주권 회복을 위한 황제의 개혁의지와 좌절이 함께한 지역이다. 또 구한말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집중되어 근대적인 외교타운이 형성되었다. 정동제일교회, 성공회성당, 구세군 본관 등 종교시설이 들어서서 서양문물이 전해졌으며, 배재 이화학당 등 개화교육의 요람으로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비운의 장소인 중명전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극장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역사와 문화예술이 융합된 2세기 창의 · 문화도시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거창의 문화유산 3

거창문화원 발행

거창의 읍면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재편은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가북면 편을 싣고, 제2권에는 고제면,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편이며, 제3권에는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편을 싣고 있다. 특히 건축물은 화재로 인한 소실이나 관리상 신 · 개축할 때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실, 충효비, 정각, 기념비, 사묘, 효행비, 정각 등의 현 위치와 배치 평면도, 전 · 후면과 좌 · 우면의 사진 등을 실어 건축물의 형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역사와 유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설을 해 놓았다.

김포실록

김포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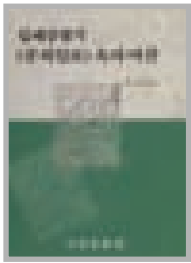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김포관련 역사기록들을 발췌하여 현대어로 풀이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김포지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의 정치, 경제, 문화, 인물을 비롯해서 천기, 포상, 항벌 등 굵직한 담론부터 자잘한 일상까지 자세히 적어놓은 역사기록이다.

達成文化遺蹟

달성문화원 발행

달성은 비슬산과 낙동강이 조화된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교 ·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독특한 향토문화를 꽃피운 고장으로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정문화재를 비롯해서 전통사찰, 향토유적, 명승고적 등을 망라한 문화유산을 이론적 기술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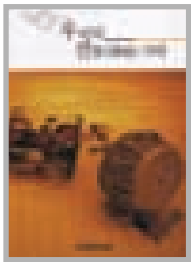
국가지정문화재인 도동서원과 용연사 석조계단, 태고정, 현몽석빙고를 위시해서 도곡재, 명성보감 판목, 예언서원 등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과 유적 · 유물, 관내 주요 명승지를 칼라사진과 함께 유적의 소재지와 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어 달성이 문화관광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일제 강점기 <중외일보> 속의 마산

마산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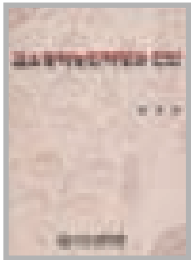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인 1926년 11월 15일 창간하여 1931년 6월 19일 지령 1,492호로 폐간되기까지의 '중외일보'는 민족주의적 필진을 펴고, 일제에 항거하는 대표적인 언론사였다. 일찍이 '시대일보'를 계승하고,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로 이어지는 신문으로 계속되는 경영난에 자본주와 신문제호를 바꾸어가며 명맥을 유지하면서 민족 언론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 '중외일보'는 982호부터 최초로 조 · 석간 4면씩, 하루 8면을 발행함으로써 지방 기사가 질 · 양면에서 풍부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경남지역 출신으로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던 남저 이우식과 백산 안희제의 지역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가락

의령문화원 발행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전통 민속이 무분별한 신생문화에 밀리고 있다. 의령문화원에서는 '지금의 노인 한 분이 없다면 그때마다 지역의 토속적인 전통문화 하나가 사라진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가락(민요, 농요 등)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전승자를 찾아 현지 방문으로 녹취, 정리하여 소개해 놓았다.



갑오동학농민혁명과 천안

아우내문화원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공포로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2006년 천안농민회 주최로 '목천 세성산 전투기념 동학농민혁명 학술심포지엄'이 열리는 등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조선왕조 후기의 정치와 사회를 위시해서 동학의 태동과 공작의 부패 및 고부군수의 탐학, 세성산전투와 우금치 전투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가라홀과 달홀이야기

강원도 고성문화원 발행

이 동화책은 청소년들이 직접 동네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만든 이야기책으로서 우리 조상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 전설 · 민담 등의 구비문학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우리의 문화적 개성이 담겨있기도 하다 '바위가 된 두영감'을 비롯해서 '금강산 옛이야기' 등 44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발행

한경면은 제주 서부지역에 위치한 고장으로서 수월봉을 비롯한 차귀도, 고산리 선사유적 등으로 유명하다. 한경면의 지리, 역사유적, 자연, 마을의 형성과 변천, 민속 · 구비전승, 민간신앙, 지명유래, 교육, 종교, 산업 · 경제, 선거 · 행정, 무형문화재 · 민속유적, 인물 등을 부문별로 나누고 행정구역과 이장표, 세대 및 인구, 자연마을 현황 등 면정 현황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과천향토자료집

과천문화원 발행

서울근교 도시로서 과천은 1970년대 말부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과천 관련자료는 급속히 멸실 · 폐기되어 가고 있어 이에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정리를 함으로써 후일 신축할 과천문화원사에 전시하여 지역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간 계획에 의해 많은 자료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거창산씨 한계파와 갈현동 경주이씨 전주최씨의 기증 자료를 비롯해서 과천농협 기증 농기구 자료를 포함한 각 자료별 성격과 현황 등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사단법인 난파합창단' '수원 사랑 어머니회' '수원레이디오케스트라' '대한여성합창단' '경기민요 동인회' '세계질 봉사회' '사물놀이 동아리' '한지 사랑회' 등이 문화원에 속해 있는 단체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果川邑誌集覽

과천문화원 발행

과천의 지리에 대한 기록 15종을 수집하여 편집하고 그것을 국역해서 합본한 책이다. 제1부 해제편에는 삼국사기지리지 읍진군편과 고려사지리지 과주편, 세종실록지리지 과천현편 등 자료의 종류를 제작연대 별로 실고 그 내용을 약술했으며, 제2부 번역 및 영인편에서는 각 자료별로 국역을 해 놓아서 과천의 지리와 인물 등을 살펴교정체성을 추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왕조실록 칠곡사료집

칠곡문화원 발행

이 자료집은 조선왕조실록 기사 중에서 현재의 칠곡군과 관련된 기사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 현재의 칠곡군은 조선시대의 안동현(인동도호부), 팔거현(성주 속현, 칠곡도호부 등을 계승한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실록에만 지리지에 부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 자료집에서는 인동현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체 기사 및 주변 읍 중에서 안동, 칠곡과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했다. 그리고 전체 목차에서는 '칠곡도호부 설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실고,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 칠곡관련 사료집성의 내용을 정리한 해제를 붙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했다.



祝文集

청원문화원 발행

우리 선조들은 예와 도덕을 중시하였으며, 유교사상이 전래되면서 의례문화는 더욱 체계화되어 고려말기에 가례가 정비되고 조선초기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되면서 왕실이나 국가의 각종 행사까지도 규범과 절차를 갖추게 되었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우리 조상들이 나고 뉘에 고하였던 축문의 요지아말로 백행의 근간이 되는 효의 결정체라 여겨진다. 청원지역의 관혼상제례부터 서원, 사당, 영당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문을 원문과 해설을 넣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해 놓았다.



國譯 世宗實錄

경남 고성문화원 발행

충재록이란 소소하고 자잘한 사실들을 모두 기록했다는 뜻이다. 고성충재록은 1893년(고종 30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오항목이 고성부사로 있으면서 쓴 일기로서 고성군의 연혁, 호구, 세제 등을 비롯해서 인사왕래, 공문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적었으며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때 영남지방의 지세 및 사천 등지의 소요에 대한 기록까지도 실고 있다.



국역 善山邑誌

구미문화원 발행

땅이 천하에서 나온 이래로 그 나라와 그 읍에 대한 그림과 기록이 있어왔다. 예로부터 읍도(邑圖)와 읍지(邑誌)는 고을 수령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니 대개 산천과 풍속, 호구, 조세, 공공기관, 도로, 인물, 효열을 비롯해서 지방행정, 제반 고적 등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산읍지'에서는 선산의 위치와 면적부터 방리, 면연혁, 동리연혁, 관액, 봉수, 묘원, 단사, 학교, 총묘, 사찰, 누정, 교량, 제방과 못, 역원, 군병, 성씨 등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방랑

영월문화원 발행

해학과 풍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난고 김병연(일명 김삿갓)선생의 생가와 묘역이 있는 영월은 최근 선생의 묘역과 김삿갓문학관을 찾아 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다 간 그의 생애는 해학과 풍자와 저항만의 시가 아니라 서정시도 있고 눈물과 한숨도 있는 시로 기존의 엄격한 한시 규제의 틀을 깨는 근대시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지난 해에는 선생의 탄생 200주년으로 '대한민국시인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영월 출신 중견 작가인 안장환씨가 방랑시인의 일대기를 통해 그는 어떤 연유로 해서 방랑으로 생을 마쳤는가, 그의 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유 등을 장편소설로 엮었다.



陳弊錄

진주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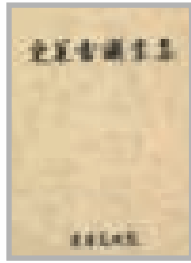
진폐록은 진주 소촌역 찰방 관아가 있던 문산리에서 발굴된 자료로 소촌도에는 16개 역이 속해 있었으며 소촌역에는 소속 역을 관할하는 찰방관아가 있었다. 각 역에 소속된 역리와 역졸들은 일정한 말과 토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공무와 관련하여 오고 가는 인물들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 나아가 입번하는 등 각종 부역을 담당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역리나 일반 주민들이 관아를 상대로 올리는 청원서를 비롯해서 관아에서 내려주는 문서들이 기록되어 있어 소촌역의 역리와 dural들이 지는 부역과 운영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泗川鄕土史叢書

사천문화원 발행

사천향토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사료와 유적 · 유물 등을 조사하여 그 뿌리를 찾고 후손에게 역사와 전통을 전승함으로써 가치관 정립을 비롯해서 사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사료에 나타나있는 사천지역의 기록들을 총정리하여 누구나 읽기 쉽도록 재구성해 놓았다.



東來古圖畫集

동래문화원 발행

동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외의 모태로서 역사가 더할수록 원 모습을 잃어가는 부산의 향토를 기록으로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국에 산재한 박물관과 규장각, 성균관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까지 망라하여 동래와 관련되는 조상들의 터전과 발자취를 사진첩으로 담아놓았다.



師門手簡

안동문화원 발행

'사문수간'은 퇴계선생이 그 제자인 월천 조목선생께 보낸 편지글을 월천선생이 보관해 두었다가 손수 화첩하여 8권의 책으로 만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두 분은 '토계'와 '다래'라는 지근 거리에 살면서 20여년에 걸쳐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월천이 47세 때 퇴계선생이 돌아가시자 그는 1년간 포대(布帶)를 착용하고 3년을 근신하였다. 83세로 명을 다할 때까지 공조참판 등의 벼슬이 주어졌지만 대개 사양하고 귀향하여 제자들과 학문을 강론하거나 스승을 추모하는 사업에 몰두하였다.



南亭面誌

영덕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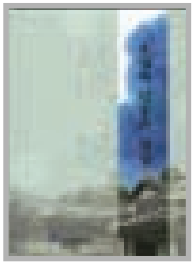
영덕군 남정면은 조선시대 영덕현의 외남면으로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함께 남정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7번 국도를 따라 어촌과 농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서깊은 고장이다. 이 책에는 면의 역사, 자연환경, 토산물, 정치와 행정, 교육과 종교, 독립운동사와 민속놀이, 세시풍속과 산업, 경제의 발전과 변천 및 상가 현황을 수록하고 마을의 유래와 옛길, 명소, 촌락의 구성과 생활양식, 출신인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오봉 정사제 선생 문집

보성문화원 발행

오봉 정사제 선생(1556~1594)은 선조 을유년(1585)에 생원과 진사 양과에 합격했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591년에 문과와 병과에 합격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 선생은 임란 당시 모친상을 당한 상 중에도 좌의병장 임계영 장군의 종사관이 되어 호남지방에서 전공을 세우던 중 39세에 남원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1754년(영조) 홍문관 부수찬에 증직되었으며 1829년 보성 정충사에 배향되었고, 1868년(고종)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와 홍문관 직제학에 추증되었다. 선생의 충효정신을 본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유성의 인물과 정신

유성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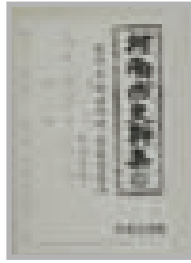
유성은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과학과 관광의 현대적 이미지와 함께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유성 지역의 선비와 선비정신 그리고 서원과 사우에 배향된 인물의 사상, 충 · 효 · 열의 인물과 정신 및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연구보고서로서 유성의 정체성 확립에 귀중한 자료집이다.



泗川人物誌

사천문화원 발행

인물지의 선정기준을 1909년 이전은 고대로 분류하고, 1944년 말까지를 근대로, 1945년부터 2006년도까지를 현대로 구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과학 등을 중심으로 전 현직 기초위원 이상의 선출직과 읍 · 면 · 동장을 포함해서 국가, 지방공무원 4급 이상, 초 · 중 · 고교 교장과 대학 학장급 이상, 공기업 이사급 이상, 상장기업의 이사급 이상, 공공법인의 대표이사, 소령급 이상의 군인, 총경급 이상의 경찰 · 소방직 공무원, 예능보유자, 예술인, 독립유공자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사천지역 태생으로 관내 초 · 중 · 고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河南省史料集 5

하남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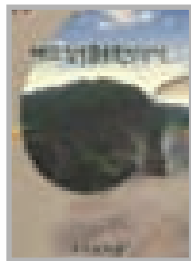
하남의 시명(市名)은 백제의 도읍이었던 '하남위례성'이라는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해서 백제의 도읍지로서의 자부심이 시명선정의 배경이다. 고대와 현대에 이르는 시대를 구분해서 4집까지 발간하고 5집에서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선조들의 항일운동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남지역의 의병운동, 3.1운동의 개황, 하남지역의 만세운동, 사회단체 등의 항일활동에 대한 자료와 하남지역 독립운동사 자료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동면지

용인문화원 발행

이동면은 용인의 남쪽 관문으로 높은 산과 깊은 골이 있는가 하면 들도 넓어 예로부터 풍요로운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용인의 북부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에 밀려 전통과 역사가 사라져 갔으며 이곳 이동면에도 덕성리와 시미리 일대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자연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조금이라도 더 수록하여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이동면의 삶의 터전과 내력, 삶의 자취, 삶의 주제, 삶의 틀, 삶의 내용, 삶의 방식, 삶의 이야기 등을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다.



내고장 傳統가꾸기

영양문화원 발행

첩첩산중인 영양은 산자수명하고 물맑고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반딧불이의 고장이다. 일월산 아래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들은 영양문화의 전통을 말해주듯 선조들의 열이 담긴 문화유산을 가꾸고 전승하기 위해 영양이 배출한 인물, 역사적 사건, 유물, 유적, 전설, 민담, 옛 풍습, 특산 명물, 명승 경관, 화귀중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수록해 놓아 영양지방의 정체성을 찾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청해진 완도군 민요집

완도문화원 발행

생활권이 모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도는 풍성한 토속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바다의 다양한 삶의 민속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의 부진 등 장애요인이 많았으나 각종 통신시설이나 교통의 발달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옛 가락을 수집하고 관련 도서에 수록된 민요를 발췌, 교정하고 재정리하여 한탄가, 타령, 청춘가(사랑가), 항일운동가, 노동요, 어업요, 상여소리, 강강술래, 애국창가 등 조상들의 애환과 기쁨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자료집으로 평가된다.



교지집

군위문화원 발행

교지는 나라의 임금이 관리의 임용, 과거 급제, 노비 하사, 공을 세운 관리가 사망했을 때 내리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교지를 받은 개인이나 문종은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큰 보람이며 자랑으로 여겼다. 이러한 교지는 조선시대의 문서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소홀로 소실되거나 훼손 또는 도난 당하고 전쟁으로 멸실되어 전통문화의 보호 및 보존 측면에서 개인이나 문종에 흠여져 있는 것을 원형 보존 차원에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 놓았다.

우리문화소식

『2008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 수강생 모집

- 지방문화원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008년 4월 7일(월) ~ 25일(금)

■ 모집 개요

내 용	1차교육	2차교육
제 목	'08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과정	'08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과정
대 상	전국 지방문화원 직원 및 회원	전국 지방문화원 직원 및 회원
기 간	2008. 5월 7일(수) ~ 10일(토)	2008. 5월 21일(수) ~ 24일(토)
장 소	부산 교통공사교육원	전주 한옥마을내(동락원), 최명희문학관
정 원	40명	40명
시 간	35시간(이론, 실무, 분임토론, 종합발표)	좌동
구 성	각 과정별 커리큘럼 및 강사진 별첨	"

■ 수강생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재직(경력)증명서, 응시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화원 회원은 해당 문화원 추천서 제출 (양식 자유)
※ 3×4cm사진(2장), 교육기간 담당자에게 제출
- 접수기간 : 2008년 4월 7일(월) ~ 25일(금)
- 수강생 명단 발표 : 5월 1일(목) 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ccf.or.kr>)
- 접수방법 : (이메일) looksong@kccf.or.kr

■ 자격 요건

- 해당 자격요건 중 한가지 증빙서류 제출

초 급 과 정	대학 또는 사회교육기관에서 인문·사회과목 30학점 이상 이수	학점이수증명서
	문화단체에서 실무자로 1년 이상 재직	경력
	문화예술 창작자로 2년 이상 활동	(재직)증명서
	문화단체의 문화예술분야에서 2년 이상 자원봉사	단체장 추천서

■ 수강료 납부

- 납부기간 : 4월28일(월) ~ 4월30일(수)
- 수 강 료 : 10만원 *반드시 본인명의 입금
- 계좌번호 : (농협 069-17-003673, 예금주: 문화원연합회)

■ 특 전

- 우수 수료자에게는 차기년도 해외연수 제공
※ '07년 우수수료자 6명은 '08년 일본 가나자와시 연수 참여

■ 참 고

- 수료기준 : 출석률(20%)+분임토의(30%)+필기시험(50%) = 70%이상 수료
*단, 출석률 90%미만인 경우 필기시험을 볼 수 없음
- 숙식 무료제공
- 문의 : 송은옥 연구원 ☎02-704-2313

'08 지역문화경영과정 (중급) 장소는 8월 대구, 광주 예정

문화정책국 우진영 국장 연합회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우진영 문화정책국장이 전영웅 지역문화과장의 안내로 2008년 4월 2일 오후 3시 연합회를 방문, 권용태 회장과 약 1시간에 걸쳐 지방문화원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우 국장은 그동안 지방문화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제고 및 확산에 변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 회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복권기금으로 시행해온 지방문화원 주관 실버문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명년도 국고보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지난 2005년도 국고보조금의 지방분권교부세로 변경이후 지방이양된 지방문화원 지원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법 정부입법 제정에 대하여, 지난 참여정부 시 지방문화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애환을 설명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법내용의 실천가능성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번 지방문화원 주무부서 고위간부의 연합회 최초방문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원장동정



강원도지회장에 이대근 씨 재선임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는 지난 3월 25일 춘천시 소양로 소재 강원도지회 회의실에서 2008정기총회를 열고 이대근(李大根 72)지회장을 차기 지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이날 재추대된 이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장을 비롯한 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춘천문화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지회장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양구 · 원주군수와 강원도내무국장을 거쳐 동해출장소장과 강릉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라북도지회장에 이복웅 씨 재선임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전라북도예술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복웅(李福雄 62) 현 지회장을 차기 지회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날 제6대 지회장으로 선임된 이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문화원과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원이 지니고 있는 문화정보를 상호교류함으로써 문화편차 해소에 힘쓰겠으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화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지회장은 청주대 대학원을 졸업(문학석사)하고 오성문화제전위원회와 최호장군추모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광진문화원장에 신길웅 씨

광진문화원은 지난 2월 15일 오후 4시 문화원 6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수석 부원장인 신길웅(申吉雄 63)씨를 제6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3월 11일 오후 3시 문화원 지하 공연장에서 정송학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강사, 지킴이, 동주민자치위원장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 제일의 문화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300여개 강좌의 문화공간으로 정착하였으며 계속 문화강좌를 통해 문화광진의 뿌리를 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신 원장은 흥일건축사무소의 대표건축사로 있으면서 평화통일장학회 이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광나루사생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관악문화원장에 김윤철 씨

관악문화원은 지난 2월 20일 관악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부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윤철(金潤哲 68)씨를 제5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2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효겸 관악구청장과 이만의 관악구의회 의장, 국회 유기홍 의원을 비롯해서 역대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및 문화가족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문화원 내에 산악부를 두어 회원들의 화합, 친목, 건강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장학회 설립 등 최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경희대 경영대학원과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을 수료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관악구 복지후원회장, 대한산악연맹 관악산우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부산 강서문화원장에 김영실 씨

부산 강서문화원은 지난 3월 11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영실(金榮實 73)씨를 제7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김 원장은 인사를 통해 문화의 질을 높여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전제하면서 무궁무진한 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문화와 문화원 발전을 위해 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동아대 정경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은 부산시 시정자문위원과 북구 및 강서구 정책자문위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문화원 창립이사와 가락 부산광역시중진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구 달서구문화원장에 박재전 씨

대구 달서구문화원은 지난 1월 29일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아트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재전(朴在鎭 80)씨를 제3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정기총회 직후 문화원 임원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박 원장은 문화원 발전을 위해 임원 및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예전과 같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요지의 취임사를 했다. 박 원장은 중등학교 교사자격검정고시에 합격, 구미시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교육계에서 활동해 왔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인천 남구 학산문화원장에 이선규 씨

인천 남구 학산문화원은 지난 2월 28일 영화공간 주안 컬처팩토리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선규(李善圭 55)씨를 제3대 원장으로 추대했다. 3월 13일 같은 장소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이영수 남구청장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남구의회 의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시·구의회 의원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이 원장은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문화원이 문화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하대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과 기업혁신과정, 인천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원장은 태평양건설(주) 대표이사와 유네스코 인천시협회 부회장, (재)승국문화재단 후원회장, (사)충청포럼 인천남구회장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여주문화원장에 이난우 씨

여주문화원은 지난 2월 18일 여주군민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명의 원장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참석회원의 63%를 득표한 이난우(李蘭雨 58)씨가 제9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3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이기수 여주군수와 이명환 여주군의회의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남선우 지회장 및 도내 다수의 문화원장을 비롯한 많은 문화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이 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사업의 틀을 마련하면서 신규 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여주군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여주군 범죄예방위원, 여주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파주문화원장에 민태승 씨

파주문화원은 지난 2월 28일 파주시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0차 정기총회에서 2명의 원장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참석회원 64%의 지지를 얻은 민태승(閔泰昇 65)씨가 제11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3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유화선 파주시장과 김형필 파주시의회 의장, 이재창 국회의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남선우 지회장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민 원장은 '파주문화원 지원조례'의 제정과 문화회관 건립 추진을 비롯해서 사업의 다각화와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광운전자공고를 졸업한 민 원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선문화원장에 유경은 씨

정선문화원은 지난 2월 27일 정선군 농업인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3명의 원장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45%의 지지를 받은 유경은(劉景殷 63)씨가 다득표자로 제7대 원장에 선임되었다.

4월 1일 정선농협 3층 예식장에서 지역 기관 · 단체장과 문화예술단체장을 비롯해서 도내 문화원장 및 다수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유원장은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동아리를 적극 지원하며 군민의 질 높은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선농고를 졸업하고 2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퇴임한 유 원장은 강원도정상담위원과 정선군 행정동우회 이사 및 공무원연금지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청주문화원장에 장현석 씨

청주문화원은 지난 2월 27일 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장현석(張鉉錫 60)씨가 제21대 문화원장으로 추대되었다.

3월 24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 남동우 청주시의회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부회장, 청주 및 충북예총의 김동연 회장과 장남수 회장, 그리고 홍재형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 많은 내빈과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장 원장은 청주문화를 다양하게 육종해온 문화지도를 복원하는 일과 서원경문화의 진정성을 채굴하고 정체성을 선양하여 오늘의 청주문화를 높이고 미래의 향토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문화설계도를 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주대와 동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공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 원장은 고건축 전문가로서 청주대 겸임교수와 (주)현석종합건축사무소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김제문화원장에 정주현 씨 재선임

김제문화원은 지난 2월 22일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 원장인 정주현(鄭柱鉉 72)씨를 차기 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제11대 원장으로 재추대된 정 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김제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 발굴 보존 및 전승사업에 더욱 힘써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원장은 김제중학교 총동창회장 및 전북농약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직을 6대에 걸쳐 연임한 바 있다.



영천문화원장에 성영관 씨 선임

영천문화원은 지난 2월 19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2명의 원장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참석회원 63%의 지지를 얻은 성영관(成榮寬 70)씨가 제13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3월 7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김영석 영천시장과 영천시의회 이창식 부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김종우 지회장, 칠곡문화원 장영복 원장을 비롯한 영천향교 전교 및 유림단체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성 원장은 문화원의 내실을 다져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여년간 문화원 이사와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성 원장은 국제로터리3630지구 6지역구 총재지역대표와 금호중 · 교육성회장, 영천체육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포은송모사업회 이사로 일해오고 있다.



예천문화원장에 김종배 씨 재선임

예천문화원은 지난 2월 29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 원장인 김종배(金鍾培 70)씨를 제12대 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뒤이어 열린 취임식에서 김수남 예천군수, 예천군의회 남시우 의장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다수의 예천군의회 의원 및 각급 기관장을 비롯한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원장은 새시대에 걸맞는 문화콘텐츠개발과 소외계층 없이 고루 향유하는 문화의 장을 펼쳐나간다는 모든 역량을 바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은 대창중 · 고 교장, 가락 예천군종친회장과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후원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울릉문화원장에 이상인 씨 선임

울릉문화원은 지난 2월 29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상인(李相寅 66)씨를 차기 원장으로 추대했다.

3월 3일 문화원 임원을 비롯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제11대 원장으로 추대된 이 원장은 '울릉문화의 요람인 울릉문화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신축 원사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울릉농협 조합장, 새마을지도자, 평통울릉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초대 울릉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마산문화원장에 임영주 씨 재선임

마산문화원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 문화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영주(林永柱 56)원장을 차기 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3월 24일 오후 2시 마산올림픽기념공연장에서 국회 이주영 · 안홍준 의원과 황철곤 마산시장, 정광식 마산시의회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조훈래 지회장, 김종수 마산교육장, 임종식 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해서 도내 문화원장과 문화원 임원 및 회원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제9대 원장으로 선임된 임 원장은 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과 3백여년 전부터 이어왔던 '마산성신대제'의 복원 및 문화원아카데미 활성화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대 경영대학원과 북한대학원을 수료한 임 원장은 경상남도학원연합회장과 마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한국문인협회와 수필과비평작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안문화원장에 조훈래 씨 재선임

함안문화원은 지난 3월 5일 문화원 강당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열고 조훈래(趙煥來 69)원장을 차기 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날 관내 주요 기관 · 단체장들과 많은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 원장은 인사를 통해 '남해안 개발시대에 동참하고 앞으로 재조명될 가야권 역사의 중심 문화원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새 원사 건립(대지 2,661㎡, 건평 1,487㎡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향후 함안군민의 10% 이상을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시켜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원장은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함안교육청 교육장과 함안JC회장, 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